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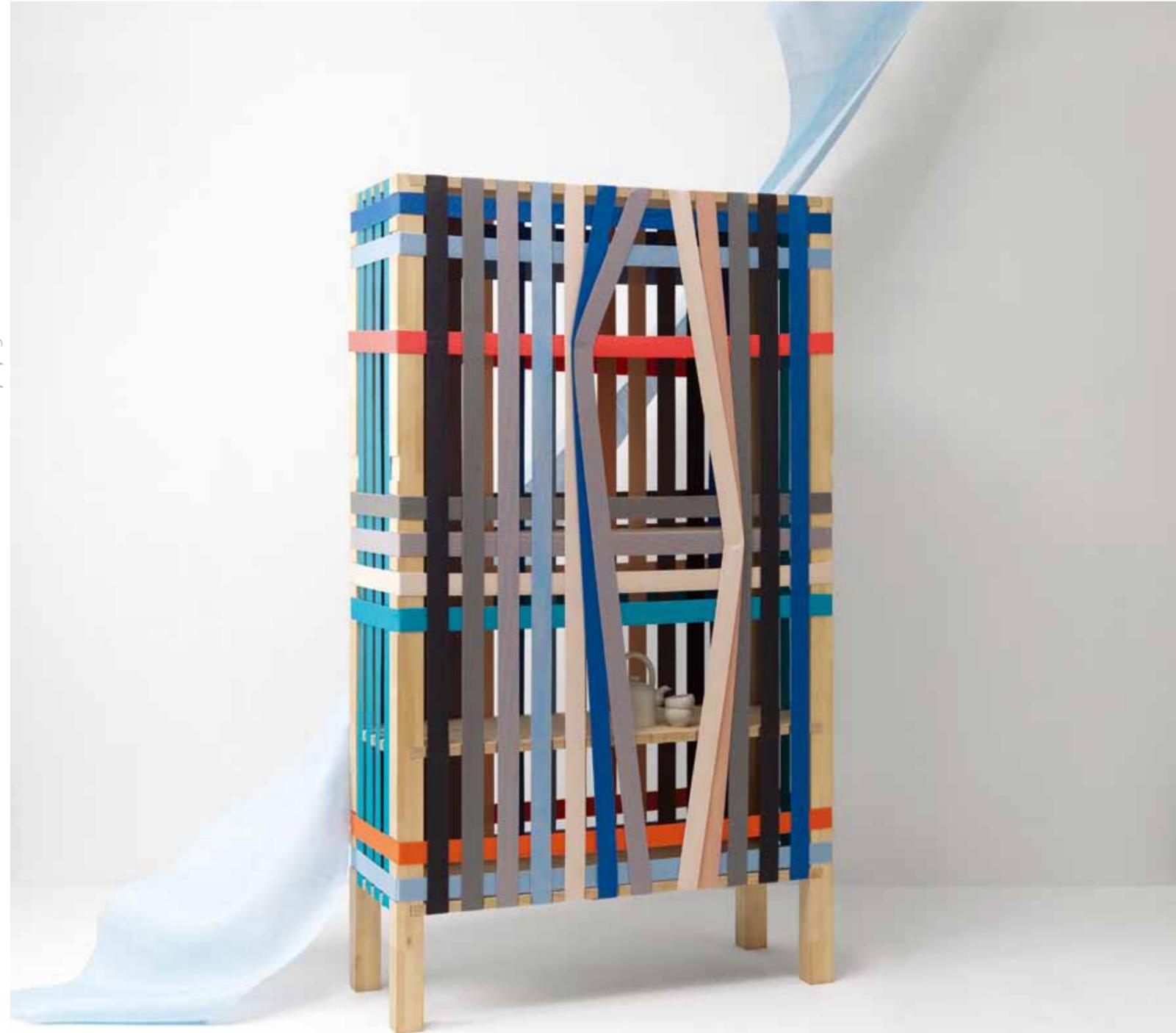
Sulwhasoo

VOL.68

Sulwhasoo

VOL.68 JULY/AUGUST 2015

Sulwhasoo



JULY/AUGUST 2015



The Lines/ 소은명

사진 이종근 에디터 권자에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글로디아

작품에서 뿜어 나오는 아우라는 작가의 성별이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한 듯 기발하며 위트가 넘치고 따뜻하다. 자작나무 수납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흔한 선입견을 깨고 파스텔 컬러의 고무 밴드 옷을 입었다. 지극히 현대적인 소재인 고무 밴드는 전통의 문창살로 표현되어, 작가가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첫 번째 끈으로 선택되었다. 작품 '더 라인스'는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오브제가 되길 바라는 작가 소은명의 바람이 곳곳에 묻어 있다. 장에 파인 홈에 맞춰 탈착이 가능한 고무 밴드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열할 수 있다. 그러다 싫증이 나면 다 떼고 한 개만 걸거나 밴드의 위치를 바꿔가며 새로운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다. 이렇듯 그녀의 작품은 다른 이의 일상에서 늘 변화하는 생동감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용도 역시 달라진다. 책장과 찬장 또는 옷장이 될 수 있기에 이 작품, 바라볼수록 흥미진진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The aura emanating from the artwork is so bold and smart with wits and warmth that you cannot even guess the artist's gender or age. The birch chest is dressed up in pastel-colored rubber bands, which go way beyond common prejudices. The extremely modern rubber bands have been used to create traditional lattices, and chosen as the first string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and the past and present. 'The Lines' reflects artist Eunmyung Soh's wish to make it a friendly object for everyday life. The rubber bands are detachable and can be rearranged in any way you want. If you get tired of them, you can remove all except for one, or change their positions to freshen up the ambiance. Her work can represent the ever-changing vitality in someone else's life. It can serve any purpose according to what is contained inside. As it can be a bookcase, a cupboard, or a wardrobe, it is ever more interesting, always making us 'think'.

Sulwhasoo

JULY/AUGUST 2015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인팍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5,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0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and the U.S.,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68 JULY/AUGUST 2015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현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정유진 02)879-3357
편집·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요형
발행일·2015년 7월 1일(통권 제68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사빛그래픽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펼 치 다

- 08 품격 있는 삶
찾은 이에게 극진한 마음을 쓰다
- 12 피부 섬기기
빛과 수분을 머금은 궁극의 피부
-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손을 댈 수 없는 대상 '유리'의 매력
- 22 新 공간을 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흐르는 공간
- 28 건너다
부드러움속에 강인한 아름다움을 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순수하게, 강렬하게
- 42 어우러지다
품고 있으니 일상에 시원한 바람이 분다
- 48 설화풍경
낙수의 淸湔에 여름의 興은 배가되니
- 52 설화보감
活力을 돋우는, 淸涼함이 감도는
- 58 설화수를 말하다
水の 흐름을 조화롭게 다스려
얼굴 위로 물결이 드리우니
- 64 디자인 기행
자연 위에 그려진 낭만 디자인
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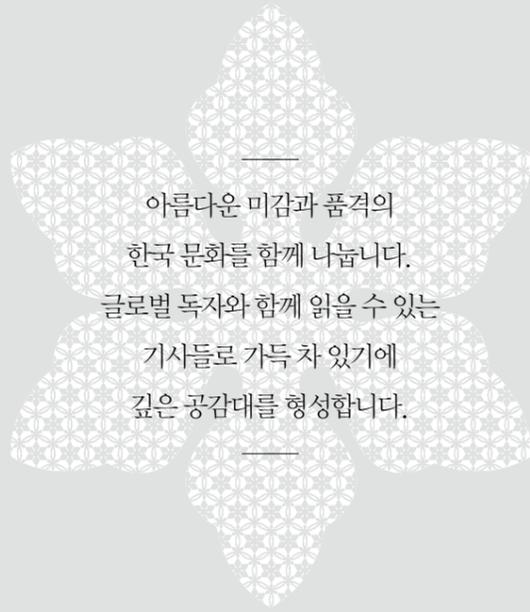


익 히 다

- 72 배움의 기쁨
꽃 한 송이라도 의미를 담아
- 78 한국의 멋
일상을 담은 정갈한 살림 도구
- 82 읽다
미술에서 미술로 이어지는 대화
- 86 설화애장
무명처럼 자연스럽게
- 88 집 안 단장
하늘과 바다의 빛깔을 담다
- 90 몸 단장
은빛의 눈부신 반짝임을 걸다
- 92 마음 단장
세기를 넘어 오스트리아를 사로잡은
여인 엘리자베트
- 94 설화 헤리티지
홀리스틱 뷰티의 서막을 열다



- 95 설화수 뉴스
- 96 문화 즐기기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글로벌 독자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기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펼
치
다



찾은 이에게 극진한 마음을 쓰다 *A Devoted Hospitality for the Visitors*

예나 지금이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고 후하게 대접하는 게 도리로 여겨진다. 마땅한 예로서 대하는 옛사람들의 손님맞이 풍경 속으로.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류로 드 골로디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동아시아의 손님맞이는 특히 극진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고사성어가 '토포악발똥(吐哺握髮)'이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무왕의 아우 주공은 자기 나라인 노나라로 가지 않고 조카인 성왕을 보좌한다. 대신 아들을 노나라에 보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머리를 감다가도 손님이 찾아오면 젖은 머리를 움켜잡은 채(握髮) 달려 나갔다. 밥을 먹다가도 입안의 음식을 뱉어내고(吐哺) 손님을 맞았으니, 이는 천하의 인재들을 잃을까 저어했기 때문이다. 너 또한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손님들을 대해야 한다.”

우리 선조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우암 송시열은 딸에게 “손님이 안 오면 가문이 무식해지고 지아비가 밖에 나가 주인 노릇을 못 할 것이니 부디 손님을 극진히 맞으라”고 가르쳤다. 청백리 맹사성은 손님이 오면 자기보다 벼슬이 낮더라도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서 맞아들여 상석에 앉혔고, 배웅할 때도 손님이 말이나 가마에 오른 뒤에야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Many people would welcome visitors to their homes; however, East Asia is particularly known for its people showing devoted hospitality for their guests. The expression ‘spit what was eaten; tie hair that was washed’ describes this. When the young King Sung was enthroned after the death of King Mu, who founded the Zhu Empire, King Mu’s brother, Zugong, supported his nephew without returning to his empire, the Ro Empire. Instead, he sent his son back to his empire and said, “I would tie up my hair to greet guests even when I was washing my hair. I would spit the food in my mouth to welcome guests because I was worried that I might lose the best minds on earth. You should greet guests with such modesty.”

This was also the mindset of Korean ancestors. Song Si Yeol (pen name: Wooam) taught his daughter to serve all their guests with devotion, as the family will become ignorant with no guest and her husband will not be able to act with confidence. Our ancestors served tea under the Bud-



볼과 도자 피쳐는 이정미 작가 작품, 사과 오브제는 김규태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나무 소반은 나성숙 작가 작품으로 근대화상회, 직사각 접시는 우일요.

불교문화를 이룬 고려시대까지 차茶 위주이던 손님 접대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술을 대접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안채에 든 손님에겐 다과상이 나갔지만, 사랑채에 손님이 오면 으레 주안상이 준비되곤 했다. 조선시대 문헌인 <여사서女四書>에는 “밥과 함께 술을 내며 객이 하직하고 갈 때도 이별하는 술을 내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사대부들의 풍습에 ‘주주객반主酒客飯’이라는 게 있었는데,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한 잔 권하면 손님이 답례로 “기다리느라 시장하실 텐데 우선 식사를 하시라”고 말하는 게 그 시절 선비들의 예법이었다.

동아시아 3국의 손님맞이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우리는 벽을 등진 방 안쪽이 상석이지만 반드시 손님이 상석에 앉는 건 아니었다. 이와 달리 중국에선 반드시 문과 마주 보는 맨 안쪽의 상석에 손님을 앉힌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에 술과 안주를, 술이 끝날 즈음에 밥이나 국수를 내며 그 뒤에 차와 다과를 대접한다. 반면 중국에선 식사 전과 마지막에 차를 내고 술은 식사 내내 계속해서 낸다. 일본에선 식사 전후에 반드시 서로 인사를 하는 게 기본 예의다.

반가이 맞고 극진히 대접하는 게 손님맞이의 기본이라면, 때를 가려 찾아가는 건 방문객이 갖춰야 할 예의였다. 무덤고 입맛을 돌을 음식도 마땅치 않은 오뉴월에 손님이 오면 주인 입장에선 더없이 황망했을 터, ‘오뉴월 손님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속담은 그래서 생겨났을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삼복에 남의 집 방문을 삼갔던 것은 주인의 예禮 못지않게 손님의 예 또한 중요하게 여겼던 옛사람들의 응송깊은 배려였다. S

dhist culture until the Goryeo Dynasty, but started serving alcoholic drinks in the Joseon Dynasty. Refreshments were served for guests in the main house for women, while drinks were served for guests in the guest house for men. Yeosaseo, which is a piece of literature from the Joseon Dynasty, states that “alcoholic drinks must be served with rice, and the drinks of farewell should be served when the guest is about to leav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greeted guests slightly differently; although, there were certain things in common. In Korea, the higher seat was the inside of the room against the wall, but not all guests were offered to sit there. In China, however, all guests were seated in the highest seat that faces the door. In Korea, drinks and snacks are served first, followed by rice or noodles. Tea and refreshments are served last. In China, on the other hand, tea is served before meal and at the end, while drinks are served throughout the meal. In Japan, it is courteous to salute each other before and after the meal. Homeowners became frustrated whenever they had guests in May or June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good food. There was a saying that ‘guests in May or June are more frightening than a tiger’. The ancestors were considerate enough to avoid visiting others during the hottest season, unless there is inevitable valid reason, as they valued the courtesy of guests as much as the courtesy of the homeowners.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 주전자, 굵 있는 잔, 포도가 그려져 있는 라운드 접시, 새 모양 손잡이 컵 모두 우일요.

빛과 수분을 머금은 궁극의 피부

The Ultimate Skin with Radiance and Moisture

쉽사리 탁해지고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에 밝은 안색과 촉촉한 결을 선사하는 자정미백에센스와 청운수딩팩은 피부의 열을 컨트롤하며 생기를 부여한다. 원인을 지혜롭게 해결한 비책으로 태양 아래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보옥寶玉과도 같은 제품이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디아 일러스트 임성구

태양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피부에 해로운 자외선과 적외선의 양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의 시계는 더욱 빨리 움직인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열심히 방어했건만 여전히 칙칙한 피부 톤과 탄력 저하로 고민 중이라면 피부 속 열을 다스려 탄력과 빛을 부여하는 자정미백에센스의 힘을 받아야 할 때다. 낮과 밤 할 것 없이 식을 줄 모르는 열기는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이러한 열은 피부 속 콜라겐을 공격하여 처짐은 물론 주름이 깊어지며 칙칙하고 어두운 안색으로 변화시킨다. 자정미백에센스는 열을 다스리는 강력한 효능의 성분으로 깨끗하고 생기 넘치는 안색을 만들어준다. 피부 방어력을 키워주는 백화사설초와 백삼다당제, 백삼사포닌으로 구성된 자정삼백단[™]이 효능의 핵심으로, 약해진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 잃어버린 탄력을 가꾸어준다. 또한 열에 의해 생겨나는 노란기는 물론 붉은기도 잡아주어 톤과 투명도를 개선시킨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빛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에서 나는 빛을 만들어주는 자정미백에센스로 피부 자신감을 새롭게 꽃피워 보자.

As the sun gets more intense, the atmosphere is filled with a greater amount of harmful UV rays and IR rays, and the skin's aging clock ticks faster. If you are concerned about dull skin tone and loss of resilience despite the fact that you have done your best to apply sunscreen and defend your skin with a hat and sunglasses, it is time you take advantage of Snowise EX Whitening Serum, which is formulated to cool the heat inside the skin for resilience and radiance. Snowise EX Whitening Serum leaves your complexion clean and full of vitality with its powerful substances that cool off heat. With its White Cloud Grass[™] for overall fortification and Snowise Brightening Triplex[™] composed of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and White Ginseng Saponin, it nourishes weakened skin to restore its resilience. It also improves the skin tone and clarity by removing the yellowness and the redness caused by heat. Make your confidence bloom with Snowise EX Whitening Serum that gives your face the most beautiful radiance in the world.

자정미백에센스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는 텍스처로 피부 깊숙이 흡수. 피부 속 열을 다스려 맑고 깨끗한 안색을 만들어주는 미백 에센스 50ml

작가의 손이 이끄는 대로 구워진 사각 백지판 위에 유약을 떨어트려 마치 투명한 물방울처럼 표현했다. 이가진 작가 작품.





청윤수당팩

피부 진정 효과가 우수한 청매실
추출물이 들어 있어 여름철 피부의
갈증을 멎게 하는 오버나이트
수당팩, 80ml

'Melting'이라는 이름의 겹은
두툼하게 시유한 유약이 녹기 시작해
넘쳐 흐르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담았다. 이가진 작가 작품.

한낮의 뜨거움보단 덜할지라도 밤에도 열기는 계속된다. 식을 줄 모르는 열은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며 탄력을 결정짓는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여 탄력은 물론 생기까지 잃게 만든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높은 열기 탓에 올라간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은 물론 피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청윤수당팩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아이템이다. 굳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바르는 즉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낮 동안 빛과 열에 달아오른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고, 늘어진 모공과 피부에 기분 좋은 탄력과 생기를 부여한다. 바르고 자면 되는 오버나이트 팩인 청윤수당팩은 낮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야외 활동 후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다면 도톰하게 펴 발라 10분 이상 흡수시킨 뒤, 미온수 등으로 씻어내면 된다. 바깥스 후 자극받은 어깨와 목 피부에 사용하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에도 도움이 되니 여름 휴가철, 산이든 바다든 장소에 상관없이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S

The heat persists at night, even though it may not be as hot as in the middle of the day. It continues to raise the skin temperature and interferes with collagen synthesis to take away your skin's resilience and vitality. TruFresh Soothing Mask, which lowers the skin temperature and quenches the skin's thirst, is a must-have item for all skin types when it becomes hot and humid day and night. It instantly cools off and soothes skin that has been heated by light and heat throughout the day, even when the product is not refrigerated, and tightens the pores and skin with refreshing resilience and vitality. TruFresh Soothing Mask is an overnight mask applied before sleeping, but you can also use it in the day. Don't forget to take it with you when you go on a vacation this summer, as it can soothe and hydrate the skin on your shoulders and neck that has been irritated under the scorching sun.

**청 윤 수 당 팩
사 용 법**



Step 1

세안한 후 깨끗한 손으로 기초 제품을 발라 지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다.
After cleansing, apply basic skincare products with clean hands to nourish your tired skin.



Step 2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 (500원 동전 크기)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도톰하게 도포한다.
In the last step of skincare, release an appropriate amount (coin-sized amount) to apply a thick layer, avoiding the eye and lip areas.



Step 3

도포 후 그대로 잠들거나 10분 이상 충분히 흡수시킨 후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내고, 손가락 끝으로 얼굴을 두드리며 물기를 흡수시킨다.
Go to sleep or gently rinse with lukewarm water after it has been absorbed for at least 10 minutes.



파스텔 톤의 잔잔한 색감과 자연친화적인 부드러운 디자인이 특징인 안나리사의 작품들.

손을 댈 수 없는 대상 '유리'의 매력

Annaliisa

Alastalo

유 리 공 예 가 안 나 리 사

남양주의 호젓한 산기슭, 두 딸이 '시골학교'에 간 시간, 뜨거운 가마와 마주 앉아 차가운 유리그릇을 만들고 있는 핀란드 출신의 유리공예가 안나리사. 뛰어난 조력자이자 예술적 동지인 남편 흥성환 씨와 종일 붙어 사는 그는 한국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작품에 담고 있을까?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이종근





물, 음료, 샴페인 등 다양도로 사용하는 유리컵

핀란드는 어떤 전통을 가진 나라인지 궁금하다.

국가의 전통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겨울이 길고, 겨울밤은 더욱 긴 핀란드의 경우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전통이 오래전부터 발달했다. 여자들은 옷을 짓고, 남자들은 빨감을 준비하거나 나무로 그릇을 만들어왔다. 핀란드 공예의 전통은 기후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겨울'이란 공통점으로 빚어진 동질성 강한 문화와 전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전통은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가장 인상 깊은 한국의 전통문화는 '발효'였다. 된장, 고추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맛본 건 놀라운 경험이었다. 신기한 건 과학 지식이 낮았던 시절,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음식문화를 만들어내고 전승했는가 하는 거였다. 외모가 아 빠와 비슷한 큰딸이 동치미와 떡을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입맛의 DNA'가 가진 힘에 놀랐다.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항아리에 넣어 숙성시키는 과정은 마치 아이를 키우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발효 음식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핀란드에서 자란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한 한국인이 숙성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발효라는 전통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다. 대조적인 이미지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게 흥미롭다.

What are Finland's traditions?

Finland is known for its long winter days and longer winter nights; therefore, we spent a lot of time indoors. We have a long tradition of making things by hands. Women made clothes, while men prepared firewood or made wooden vessels. The traditional Finnish crafts have been mainly attributed to its climate. In this respect, the culture and tradition of Korea and Finland have a lot in common, thus owing to the homogenous character of the winter season.

What is the impression of the Finnish people on the traditions of Korea?

It is such a broad and difficult topic; however, the most impressive Korean tradition is the fermentation process.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to taste fermented food such as doenjang, gochujang, and kimchi. What was amazing to me was how they created and handed down such a magnificent food culture even with limited scientific knowledge. I was surprised by the power of DNA on the sense of taste, as evidenced by my eldest daughter. She resembles her father, and they both love dongchimi and rice cakes. I think the process of curing fermented food, such as kimchi in jars, is similar to raising kids. I was raised in Finland, where there is not much fermented food, and it looked very beautiful. I am very interested in learning how the Korean people have developed the tradition of fermentation, which requires a long time of waiting, when they are rather renowned for being a fast culture. It is fascinating to see that these contrasting images of culture do coexist.

많은 장르 중에서 왜 유독 유리공예를 하게 되었고, 유리라는 소재의 매력은 무엇인가?

우연이었다고 말해야 솔직한 답변이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흙 만지는 걸 좋아해서 도자기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학과에서 유리공예도 함께 배우다 보니, 유리와 만나게 되었다. 도자기와 유리는 불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런데 도자기는 내 손끝에서 디자인이 완성되는 반면에, 뜨거운 유리는 손을 댈 수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훨씬 큰 도전을 요구한다. 만질 수 없는 소재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있다. 또 유리는 뜨거웠을 때는 유연하지만 차갑게 식으면 변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런 점에 무한한 매력을 느낀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물한 남편과는 어떻게 만났나?

나와 마찬가지로 도예와 유리공예를 전공한 남편은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남편은 체코에서 건축과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다 핀란드로 유학 왔고, 같은 대학에서 만났다. 함께 작업을 하는 지금, 그는 뛰어난 조력자이자 동지다. 서로의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작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남편은 무슨 일이든 나보다 조금 씩 더 잘한다. 그런 남편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이다. 내 실력이 더디게 향상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웃음)

예술 작품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작품이 만들어진 공간의 특성이 묻어나기 마련이다. 한국이란 공간적 배경이 당신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핀란드에서는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딱히 작품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내 모든 작품의 배경은 한국에 국한돼 있어, 딱히 공간이 주는 영향을 크게 느낀 적은 없다. 또 변화를 느끼기엔 작가로 활

Why did you choose glass craft among the many genres of art?

I majored in porcelain craft because I have always loved playing with clay, and I was introduced to the use of glass as a medium due to it being a part of the program. Porcelain and glass are similar in that the finishing process is completed through fire. I can design porcelain with my fingertips; however, the hot glass is impossible to lay my hands on. It demands a greater challenge. There is pleasure in molding something into a desired form without touching it. Another difference is that glass is soft when hot, but becomes hard when it has cooled. That is the reason why it is infinitely attractive.

How did you meet your husband? How was he able to convince you to live with him in Korea?

I met my husband in college, where he also majored in porcelain and glass craft. He is a very curious man. He studied Architecture, Photography, and many other genres before coming to Finland. He is a great assistant and companion whenever we are working together. We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so we are able to exchange positive influences. He is slightly better than me at everything, and that is why he helps me a lot. The drawback is that I was not able to show rapid improvement (laughs).

How has the spatial background of Korea affected your work?

Korea has become the only location for my artworks, and I was not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space. In addition, I have only been active as an artist for a short period of time, so I was unable to feel any



안나리사의 유리 항아리가 등장한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지면 광고.

동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다만 컵을 예로 들자면, 얇고 화려한 디자인의 컵은 시장에 많기 때문에 투박하지만 무게감이 충분한 컵을 만들겠다는 초기의 생각은 여전하다. 하지만 파스텔 톤의 색깔을 가미한다든지, 불투명한 작품 또는 소다를 이용해 작은 기포가 생기는 작품을 만드는 시도 등은 다양하게 해왔다. 최근에는 그런 시도가 배제된 초기의 단순한 작품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변화라면 변화일 것이다.

설화수의 광고에 당신의 유리항아리가 등장한 바 있다. 어떤 느낌이었나?

설화수와 첫 미팅을 진행할 때, 한국의 전통 오브제를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래서 광고에 들어가는 작품의 작업을 할 때도 한국의 항아리가 가진 지극히 아름다운 선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에 힘썼다. 특히 작업을 하면서 내가 처음 한국 문화에 반해서 지금까지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아름답게 알리려는 설화수의 노력과 열정에 감명받았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아름다운 유리항아리가 탄생했다 (웃음)

외국인 작가로서 한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묶여 있다. 부모이기 때문에 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 두 딸이 한국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아마 이건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외국인 작가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 뜨거운 가마 앞에서 첫 만남 이후 그려왔던 것처럼, 늘 큰 힘이 되는 남편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은 분명하다. S

change. Taking the cups as an example, I still want to create coarse and heavy cups as there are many thin and colorful cups available in the market. I have made various attempts, such as adding pastel colors, making opaque glasses, or using soda, in order to create small bubbles in the glass. I am trying to go back to my earlier work without any of those attempts. I guess you could call that a change.

Your glass jar has been featured in a Sulwhasoo advertisement. How did you feel?

When I first met with Sulwhasoo, I found the manner in which they used the traditional objects of Korea for advertising very interesting. Therefore, I tried hard to capture as much of the extremely beautiful line of Korean jars as I could while working on the piece for the advertisement. As captivated as I was by Korean culture in the first place, I was just as touched by Sulwhasoo's endeavors and passion to interpret Korean tradition in a modern way and present it beautifully. For this reason, I was able to create a glass jar that is more beautiful than I had thought it would be (laughs).

What is your most challenging experience as a foreign artist living in Korea? What are your plans for the future?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tied into one. As a parent, I am always concerned about the happiness and future of my kids. My two daughters are adjusting to their lives in Korea very well, but I am not sure how they would do in the future. What I can say for sure is that my husband and I will do our best to create what seems best to us, just as we have always done since we first met in front of a hot kiln.



글라스 블로잉을 시연하는 안나리사와 작업실 풍경. 안나리사는 뜨거운 유리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재미가 있다고 말한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흐르는 공간
The Space of Sky, Wind, Stars, and Poetry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기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 만든 윤동주문학관. 재생의 숨결을 불어넣은 공간에서는 시인 윤동주의 시와 인생이 되살아난 듯 흐르고 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천장은 시인이 헤던 별을 담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종로문화재단

'달린 우물'과 '열린 우물'에는 물의 흔적이 벽체에 그대로 남아 있어 시간과 기억의 흐름이 느껴진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운동주의 ‘서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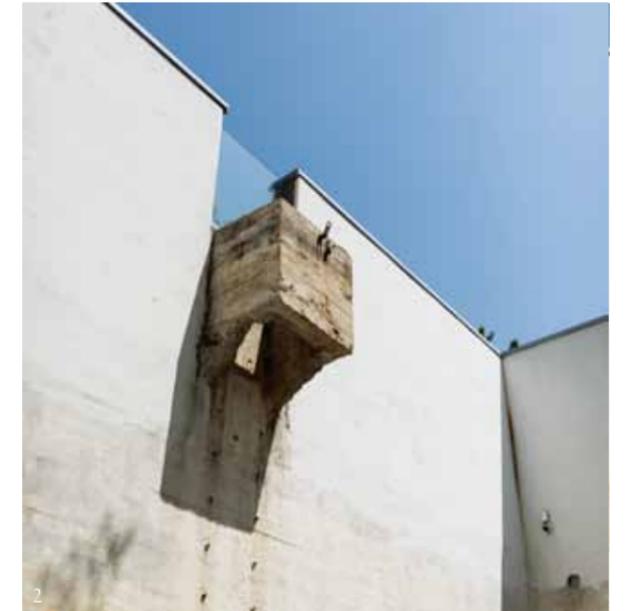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고민하던 젊은 시인 운동주. 항일운동 혐의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1945년 2월, 28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으나 그의 아름다운 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대표작 ‘별헤는 밤’ ‘자화상’ 등은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송金松의 집에서 문우文友 정병옥과 함께 하숙 생활을 하던 당시에 썼다. 운동주는 종종 인왕산에 올라 시정詩情을 다듬었다고 한다.

2012년 7월, 운동주가 올랐던 인왕산 자락, 버려진 청운수도가압장과 물탱크가 운동주문학관으로 탈바꿈했다. 청운수도가압장은 원래 지대가 높은 청운동 주민들에게 수도물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곳이었다. 느려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수도 시설이 좋아지고 가압장 설치의 결정적 이유였던 청운아파트가 헐리자 더 이상 그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 2008년 용도폐기되었던 것. 서울 종로구는 이곳을 ‘열린 우물(제2전시실)’과 ‘닫힌 우물(제3전시실)’로 리모델링해 운동주 시인을 기리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세상사에 지쳐 타협하면서 비겁해지는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자극을 주는 운동주의 시를 모티브로, 영혼의 물길을

“Till my last, to suffer not a blot of shame on looking up at heaven,
My heart has been tormented by mere rustlings of the leaves.
In a spirit of chanting stars, I shall love all the moribund lives.
Then, let me walk on my path given.

The wind whisks by stars as ever on this even.” (‘Prelude’ by Dongju Yoon)

Dongju Yoon was a young poet who was saddened by the Japanese imperial rule over his home country. His most beloved poems, ‘A Night of Counting Stars’ and ‘Self Portrait’, were written while he was attending Yonhee Christian College and homestay with Byungwook Jung at the novelist Song’s Kim home at Nusang-dong, Jongno-gu. Yoon would hike to Mt. Inwang in order to refine his poetic spirit. In June 2012, the Cheongun Water Pump and Water Tank located beneath Mt. Inwang, where Yoon hiked, have been transformed into Yoon Dong Ju Literature Museum. Cheongun Water Pump used to pump tap water for the people of Cheongun-dong highland. It pressurized slowing water so it could flow fast enough. As the water supply systems improved and the Cheongun apartments were torn down, there was no longer any reason to pump the water, and the pump was shut down in 2008. The Jongno-gu Office in Seoul remodeled this place into ‘Open Well’ (2nd Exhibition Room) and ‘Closed Well’ (3rd Exhibition Room) as a space for remembering the poet, Dongju Yoon. The water is flowing anew



1, 3 운동주문학관 입구에서는 시인 운동주의 초상과 그의 시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다.
2 제2전시실 ‘열린 우물’은 물탱크의 윗부분을 개방하여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 4 운동주문학관 옆 계단은 카페 ‘별뜨락’과 ‘시인의 언덕’으로 안내한다.



'시인의 언덕'에 오르면 멀리 인왕산을 배경으로 윤동주문학관을 조망할 수 있다.

정비해 새롭게 흐르도록 했다. 윤동주문학관은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2013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되었다.

윤동주문학관은 총 3개의 전시실과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전시실인 '시인채'는 시인의 순결한 시심詩心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간 윤동주'를 느낄 수 있다. 9개의 전시대에는 시인의 일생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한 사진 자료들과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쓴 시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쉽게 씌어진 시' '자화상' '서시' 등 그의 대표작 친필 원고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윤동주가 살던 곳의 우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 '열린 우물'은 그의 시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프를 얻어 물탱크의 윗부분을 개방하여 중정中庭을 만들었다. 콘크리트 벽에 남은 물의 거친 흔적과 하늘을 향해 열린 천장은 생경한 풍경이지만 시간과 기억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물탱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만든 제3전시실 '달린 우물'은 침묵하고 사색하는 공간으로서 시인의 일생이 담긴 영상을 틀어준다. 벽에 남겨진 물 자국과 쿼터한 내용, 낡고 작은 의자가 젊은 시인이 절망하면서도 희망했던 시대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다. 윤동주문학관 관람이 끝나고 문학관과 바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오르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카페 '별뜨락'이 있고 계단을 더 오르면 '시인의 언덕'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성곽, 인왕산의 능선을 바라볼 수 있어, 윤동주문학관의 또 다른 모습과 만날 수 있다. S

with the poems of Yoon and it beautifully stimulates our spirits that are weary lives. The Yoon Dong Ju Literature Museum has been awarded with the 2013 Prime Minister's Award for Public Architecture and the 2014 Seoul Architectural Awards as a successful model of urban restoration. The Yoon Dong Ju Literature Museum consists of three exhibition halls and a lounge. The 1st Exhibition Hall, also known as the 'Poet's Room', is a symbol of a poet's innocent heart and where you can feel the presence of Dongju Yoon as a person. The nine display cases exhibited the photographic resources that are sorted in chronological order, along with the poems that he has written while studying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the original hand-written pieces of his most famous works, namely, 'Sky, Wind, Stars, and Poetry', 'An Easily Written Poem', 'Self Portrait', and 'Prelude'. It also exhibits the well from the place where Yoon used to live. The 'Open Well' at the 2nd Exhibition Hall was inspired by the well mentioned in 'Self Portrait' that opened up the top of the water tank in order to create a courtyard. The rough trails of water on the concrete walls and the open ceiling created an unfamiliar sight, but they allowed you to feel the flow of time and memories. Meanwhile, the 'Closed Well' in the 3rd Exhibition Hall preserves the water tank in its original form. It is a space for silence and contemplation. It also plays a video about the poet's life. The prints of water on the walls, as well as the humid smell and the small old chair, seem to invite you to the young poet's time of despair and hope.

부드러움속에 강인한 아름다움을 품다 *The strength of beauty in smoothness*

좋은 것은 나눌수록 배가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대만에서도 역시 통통하였다. 설화수는 홀리스틱 뷰티 메세나로서 한국의 문화 예술과 격이 다른 아름다움을 전하며 진정한 소통의 창을 열어주었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코비스



설화수는 2015년 3월, 타이페이의 대표 럭셔리 백화점인 미츠코시 A8점에 제4호 매장을 입점하였으며, 향후 럭셔리 스포츠로 손꼽히는 주요 백화점에 매장을 신설해 대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대만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피부 고민의 근본을 찾아 현답을 제공하다

입소문이나 한국에 여행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 보고 들던 설화수 제품을 대만 현지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2012년 9월. 론칭 후 엄청난 매출량이 말해주듯, 그동안 피부 고민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이들에게 설화수는 명인의 현답으로 다가왔다. 대만은 아열대 기후로 사계절이 더운 편이라 피부가 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자외선은 물론 외부의 열 때문에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피부 속 탄력이 저하되고 기미, 잡티가 생기는 등 전체적으로 노화가 촉진된다. 좋은 원료와 함께 설화수만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들은 더운 기후 탓에 항상 지쳐 있던 피부에 활력은 물론 탄력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에, 20대는 물론 50~60대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끈적임 없이 빠르고 가볍게 스며들면서 피부 전체에 충분한 보습 효과를 주는 텍스처에 대한 칭찬 또한 드뭅다. 더불어 은은한 한방 향기는 심신의 안정까지 부여하여, 진정한 홀리스틱 뷰티 브랜드 설화수는 대만에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다.

Searching for the essence of skincare concerns to provide wise solutions

Local customers in Taiwan have been able to purchase Sulwhasoo since September 2012, after they learned about it via word-of-mouth or from people who traveled to Korea. Proven by the tremendous amount of revenues it generated since its launch, Sulwhasoo gave the Taiwanese wise solutions to their skincare concerns. The products, made with good ingredients and Sulwhasoo's original technology, provide vitality and resilience to skin that is tired due to the hot climate. Because Sulwhasoo identifies the essential causes of skin problems that people are unaware of and provides the most innovative solutions, it is widely loved by people of all ages, from those in their 20s to those in their 50s to 60s. Its subtle scent of Korean Medicine also tranquilizes the body and mind. Therefore, Sulwhasoo, the genuine brand of holistic beauty, is presenting the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to Taiwan.



설화수의 제품은 물론 브랜드 히스토리까지 접할 수 있었던 대만 설화수 '4세대 윤조에센스' 론칭 행사장.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케니비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케빈 역시 설화수의 팬. 특히 케빈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사용법을 행사장에서 직접 시연해주었다.



©Louie Pajoyos/Louie Pajoyos/Corbis

아시아 대표 글로벌 브랜드의 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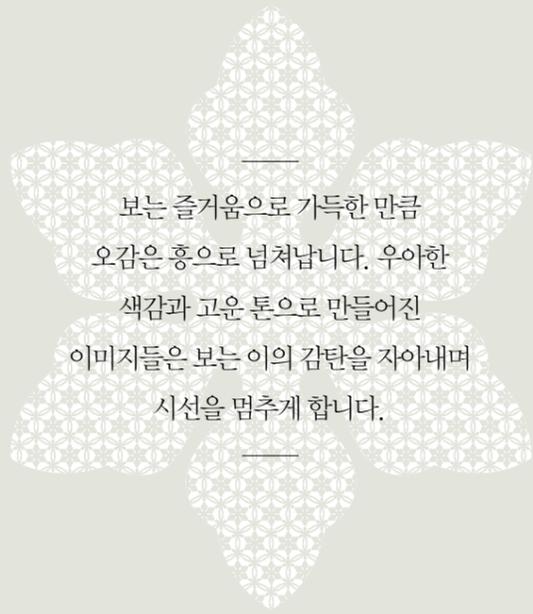
대만에서의 성공적인 론칭 후 설화수는 그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서양 브랜드와 견주어 훨씬 앞선 인지도와 실력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 노력은 지난 2015년 6월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4세대 윤조에센스' 론칭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효능을 업그레이드하여 한층 진화한 윤조에센스를 소개하는 자리로, 최초의 한방 부스팅 에센스로서 세계 여성들의 뷰티 루틴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은 윤조에센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윤조에센스의 역사와 특징, 대만에서 이루어진 설화수의 성공 스토리 등 제품과 브랜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행사에는 미디어는 물론 셀러브리티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케니비와 대만 여성의 뷰티 멘토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케빈이 등장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설화수 퍼펙팅쿠션의 영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케빈과의 협업으로 온라인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며, 다시 한 번 설화수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S

The power of Asia's leading global brand

Since its successful launch in Taiwan, Sulwhasoo has further stabilized its reputation there. Its ceaseless innovation, development, and efforts were clearly witnessed at the launch of the '4th-generat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held in Taipei, Taiwan on June 2, 2015. Sulwhasoo introduced its new and evolved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nd explained everything about the product, the first Korean herbal medicinal boosting serum that has innovatively changed the beauty routine of women around the world. The program included the product history and characteristics, the story of Sulwhasoo's success in Taiwan, and an overview of the brand and its products at a glance.

The event lured major media and a large group of celebrities. Kenny Bee, a popular singer in Asia, and makeup artist Kevin, a renowned beauty mentor in Taiwan, were spotlighted.



가
다
다
다

순수하게, 강렬하게

'라이징 스타'라는 말은 왠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건 <위키드>를 통해 그녀가 단번에 스타가 되었다고 떠드는, 누군가의 부산스러운 이야기일 뿐이다. 분명 <위키드>에서 박혜나는 멋있고 강렬했다. 화려한 무대에 서기까지, 그녀는 중소극장의 장막 안에서 7년 동안 관객을 갈망했다.

에디터 박지현 사진 박재형

Park

박 혜 나

Hye Na





대중적인 데뷔작을 꼽는다면 단연 <위키드>다. 라이선스 대작에 캐스팅된 것도,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머피어의 베스트셀러를 기초로 한 뮤지컬이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초록 마녀 엘파바. 작품을 본 관객이라면 브로드웨이에서 이 작품을 가리켜 '초록 돌풍' 운운했던 이유를 이해할 터. 초록색 분장으로 얼굴이 가려진 순간, 묘하게도 그녀의 노래는 관객의 가슴과 귀에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뮤지컬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이렇게 속삭였다. 저 강렬한 초록색 마녀는 누구일까?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타난 거지?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온다는 진부한 말을 빌리자면 <위키드> 오디션이야말로 그녀에게 최고의 행운이었다. 다만 그 행운이 덩석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억울하다. '박혜나'라는 초록 마녀가 무대에 서기까지, 그녀는 7년 남짓 무명의 설움을 맛보았다. 2006년 데뷔작 <미스터 마우스> 이후, <싱글즈> <영웅을 기다리며> <심야식당> <파리의 연인>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지만 대중적인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녀 역시 대학로의 수많은 배우 속에 존재했다. 앞을 알 수 없기에 불안한 배우라는 직업에 회의가인 것도 어찌면 당연했다.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09년 즈음.

"처음 주인공을 맡은 창작 뮤지컬 <달콤한 나의 도시>가 흥행에 실패했어요. 전 그때까지 무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작품이 없어지든 조연을 맡든 그저 열심히 뛰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드디어 주인공을 맡았는데,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나니 백수가 되어 있더라고요."(웃음)

가슴이 훅 내려앉았다. 무대의 주인공이란 목표는 이뤘지만 웬지 전보다 더 쓰리고 허전했다. 무대에서 주인공을 맡다가 현실로 돌아와 7개월 남짓 '백수'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과연 이 직업을 계속해야 할지 그 기준선부터 흔들렸다. 마음이 허할수록 그녀는 하루를 바쁘게 채워갔다. 발레와 재즈, 성악 레슨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면서 바지런히 움직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출처가 불분명한 자신감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좋은 신호였다. 매우 감사하게도 그 즈음 조광화 연출가가 뮤지컬 <남한산성>의 '난생'이라는 역할을 제안했다.

"팀 워크숍을 가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뮤지컬 배우 박혜나입니다'라고 말하자 연출가님이 '스스로 그런 말도 하는구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니 그때까지 누군가 제게 직업을 물으면 그저 '프리랜서'라고 답했더라고요.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이 불안하게 느껴져 한 발 빼고 있었던 거죠.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에 들어가면서 배우라는 직업에 책임감과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배우'. 이 짧은 단어를 말하기까지 왜 그리도 힘들었을까. 그건 단순히 미래가 불안정한 직업이어서는 아니었다. 공무원 집안에서 자란 그녀에게, 배우란 웬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내는 무엇이었다. 어딘가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편견. 박혜나? 모범생이고 조용하던 자신의 모습을 배우나 스타란 단어에 대입하려니 뭔가 머뭇거리졌다. 과연 내가 배우를 해도 될까? 의심이 담긴 질문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혔던가.

배우로의 첫 길도, 우연찮은 신청서에서 비롯됐다. 대개 고등학생의 삶이 그렇듯 공부 말고 특별한 길 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 그녀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하던 참이었다. 머리카락이 식히지 않아 뮤지컬 워크숍에 참여했다가 춤과 노래에 빠졌다. 당시에는 그게 뮤지컬이라는 장르인지조차 몰랐다.

“LP 판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아빠와 라디오로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항상 틀어놓던 언니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선뜻 내 길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는데, 워크숍에서 구소영 감독님을 만나면서 뮤지컬에 푹 빠져버렸죠.”
자고로 인생이란 작은 인연이 맞닿아 삶의 곡선을 이루는 법. 아버지의 LP 판과 재수 시절의 뮤지컬 워크숍 그리고 무명의 시간들이 버무려져 지금의 그녀를 만들지 않았을까. <위키드> 이후, <셜록홈즈> <드림걸즈> <테스노트> 같은 굵직한 작품들이 계속 다가올 만큼, 이제 그녀는 무대의 헤로인이 되었다.

특히나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테스노트>는 특별한 구석이 많은 작품이다. 유명한 일본의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그렇고, 브로드웨이 진출을 고려해 <지킬앤하이드> <드라큘라> 등으로 알려진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곡을 맡은 것도 그렇다. 학창 시절 재미있게 읽은 만화였으니 출연 제의부터 반가웠다. 게다가 그녀가 맡은 역할은 환상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신 ‘렘’, 스모키 화장에 하얀 슈트를 입고 강렬하게 등장한다.

“이번 작품은 극 분위기가 매우 독특해요. 뮤지컬이지만 전체적으로 연극적인 느낌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조명과 무대는 최대한 연극처럼 담백하게 가면서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는 분위기랄까요. 배우들 간의 자극과 반응을 더욱 세밀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거예요.”

대개 ‘똥’ 배우들에게는 심리적 들뜸이나 거품 같은 것이 끼기 쉽다.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당연하다. 박혜나도 그렇다. 걸출한 작품에 계속 캐스팅이 되고 극장을 나오면 팬들의 환호가 기다리며, 무명의 후배들에게 꽤 훌륭한 롤모델로 꼽힌다. 과거 방황하던 시절에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다. 다행히 그녀는 주변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침착한 성품을 지녔다. 그건 <위키드> 오디션에서 뿜힌 이유이기도 했다. 자신의 길을 무던히 찾아가는 엘파바의 내면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다는 연출가의 말처럼.

“겸손한 자세로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무명이던 시절 많이 좌절하면서 얻은 해답은 ‘어제보다 잘하자’ ‘최대한 무대를 즐기자’ 이런 단순한 것들이에요.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에 부담을 느끼거나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박혜나라는 사람은 태생부터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가만히 에너지를 쌓아두다 무대에서 터뜨리는 부류. 그러니까 무대의 장막이 열리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면 그제야 순수한 얼굴에 강렬한 표정이 피어난다. 이것이 그녀가 관객들에게 ‘뮤지컬 배우 박혜나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증명하는 방식이다. S

메이크업 조원경(엔플로에 02-517-9111) 헤어 희린(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그레이야(02-3442-3012) 소사이어티 오브 골든케이(02-514-9006)





품고 있으니 일상에 시원한 바람이 분다

열일염열烈日炎炎으로 실 새 없이 땀이 목을 타고 흐를지언정, 더위를 식혀줄 무릉도원은 가까이에 있다. 몸과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드리우며 한낮의 더위를 잊게 해주는 왕골과 대나무 소재 실용품 그리고 멋을 더한 부채가 있어서다.

촉촉으로 느끼고 감성으로 맞이한 여름은 시원함으로 가득하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리아(문지윤, 황남주)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여름 풍류

비람을 일으켜 더위를 식혀줄 생활 속 요긴한 물건인 부채. 가족과 비단 등의 소재를 거치면서 가볍고 단단한 한지로 만들어진 부채들은 여름 풍류에서 빠질 수 없는 전통 아이템이자 훌륭한 장식 오브제로 사용되고 있다. 형태에 따라 둥근 모양의 '단선團扇', 접었다 펼 수 있는 '접선摺扇' 등이 있다.



왼쪽 무명으로 속지를 입힌 다음 겉지를 한지로 한번 더 입혀 완성한 공작선 부채들은 품격 있는 장식품으로도 사랑받는다. 손으로 직접 그리고 참죽나무를 세심하게 깎아 만든 그야말로 장인의 숨씨가 꽃핀 수공예품들이다. 충남무형문화재 제1호 서천 부채장 이광구 선생 작품. **오른쪽** 나비 모양 부채와 꽃 모양 부채 서천 부채장 이광구 선생 작품. 수백 번의 섬세한 손놀림과 다듬질 공정을 거쳐 완성된 빨간색 합죽선은 전북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김동식 선생 작품.



왼쪽 꽃무늬 패턴으로 세심하게 만든 화방석, 초록빛 띠를 두른 긴 타원 형태의 삼합, 푸른빛 띠를 두른 굽 있는 접시, 도자 형태의 뚜껑 있는 항, 보랏빛 꽃삼합 모두 왕자골강화화문석. 오른쪽 전통의 화문석 공예에 작가가 지향하는 패턴과 컬러를 넣어 만들었다. 거기에 정형화되지 않은 유리공예가 합쳐져 더욱 유니크한 작품으로 탄생. 모두 양유완 작가 작품으로 모모와니.

자연의 색감과 촉감을 그대로 담다

벼를 닮은 왕골로 엮은 완초 공예품들은 짙은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다. 풀의 색감과 촉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용품들은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처럼 가볍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땀까지 흡수해 한결같은 상쾌함을 제공한다. 온기를 보존하기에 겨울에도 사용 가능해 사시사철 쓸 수 있는 자연 속 명물이다.



사계절 푸른 대나무의 선선한 사각거림

가는 대를 물들이거나 인두로 대나무를 지저 소품을 만들거나 대나무를 잘게 빼개어 나무로 된 물건 위에 장식한다.
또 표면을 인두로 지저 무늬를 올리기도 하는 죽공예품은 현대와 만나 다양한 모습으로 탄생한다. 채반이나 돛자리 등 기본적인
용품은 물론 라디오 케이스, 조명갓, 소품 케이스 등 좀 더 살가운 오브제로 다가온다.



왼쪽 손잡이를 대나무로 만든 백자 합은 강설자 작가 작품. 대나무로 수작업한 난 상감 서류함은 최선희 작가 작품으로 한정오죽공방. 나뭇잎 모양의 접시는 이세용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오른쪽** 대나무 케이스의 모던한 블루투스 스피커는 렉스코리아. 그 위에 올린 대나무 뚜껑 에스프레소 잔은 4개 한 세트로 렉스코리아. 꽃 모양으로 만든 대나무 촛대받침과 원하는 오브제를 담아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석함은 최선희 작가 작품.



낙수의 淸音에 여름의 興은 배가되니

비류직하(飛流直下) 만장폭포(萬丈瀑布)라! 거세게 떨어지며 흩날리는 물 먹은 바람들은 여름날의 후터분함은 물론이요, 근심 걱정 모두를 떨치기에 모자람이 없다. 떨어진 후 유유히 흘러가는 물의 고요한 지태 역시 보는 이의 심상을 자극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대함(大憾)의 기백과
청아(淸雅)의 기운으로 넘쳐나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든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실사이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의 시 '폭포' 중에서)

균형을 맞추어 피부 톤과 결의 격을 높이다

피부 내실을 튼튼히 해주는 스킨케어와 뛰어난 피부 톤과 결의 보정력을 가진 메이크업 베이스의 두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설화수 메이크업 밸런서, 미끈거림과 끈적임 현상을 개선한 '新 유화 시스템'을 도입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피부 친화도를 높인 텍스처로 피부에 편안하게 밀착되는 사용감을 완성했다. 메이크업밸런서 1호 라이트 핑크, 2호 라이트 퍼플.



지우고 나니 다시금 피어나는 맑고 촉촉한 기운

설화수 클렌징폼은 조밀하고 고운 거품이 신뜻한 세안감을 선사함은 물론, 부평초와 울피 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세안 후에도 명김 없이 오랫동안 수분 가득한 촉촉함을 유지시켜준다. 아침 저녁 세안 시 손바닥에 2회 정도 펄펄,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얼굴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클렌징한다.



단맛과 쓴맛의 調和
레몬 생강



活力을 돋우는, 清涼함이 감도는
Revitalizing and Refreshing

가만히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계절이라 더위를 식혀줄 찬 음식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시원하면서도 몸을 보필해줄, 보약만큼 약이 되는 여름 냉차冷茶로 거뜬히 여름을 이겨내리라.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오미자
五臟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답다고 찬 것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하여 예나 지금이나 냉한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냉차 한 잔 들이켜는 순간, 몸 전체로 전해 오는 짜릿하고도 시원한 기운은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제공한다.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 되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냉차는 더위는 물리고 건강은 보해주는 고맙고도 착한 먹거리다.

시원한 레몬 생강차 떨어뜨리면서 매운 향을 가진 생강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이뇨작용을 촉진해 부기를 가라앉힌다. 얇게 썬 레몬과 생강을 담은 통에 설탕을 뿌린 후 1~2일 숙성시킨 후 냉장보관한다. 시원한 탄산수에 섞어 마셔도 좋다.

비타민으로 뽀뽀 몽친 유자차 비타민이 풍부한 것은 물론 구연산이 들어 있어 면역력을 올려주는 유자. 갈슘이 많이 들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냉동시킨 유자차를 블렌더에 넣고 갈아슬러시로도 먹을 수 있다.

기력 회복엔 오미자차 달고 시고 맵고 쓰고 짠 다섯 가지 맛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 오미자 五味子. 오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은 물론이요, 몸 안에 에너지를 생성하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기에 텀블러에 담아 늘 곁에 두고 마시면 기력 떨어질 일이 없다.

보약보다 좋은 매실차 3000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을 만큼 효능이 뛰어나 '푸른 보약'이라 일컫는 매실은 피로 회복을 돕고 카테킨산이 함유되어 해독은 물론 살균작용도 뛰어나다. S

It is good to drink a moderate amount of cold tea made from ingredients that are easily found around you. In addition, it is beneficial to your body because it takes away the heat and enhances your health.

Drink a cool lemon ginger tea The bitter and spicy flavors of ginger are great antioxidants that defy aging and promote urination in order to relieve bloating. Sprinkle sugar over a thinly sliced lemon and ginger, and let it cure for 1-2 days in a jar before refrigerating.

Yuzu tea is full of vitamins Yuzu is not just rich in vitamins, but it also improves your immune system as it contains citric acid. It is also rich in calcium, which helps strengthen your bones. You can also enjoy yuzu tea by mixing it with ice in your blender.

Drink omija tea for energy Omija is named for its five tastes, namely, sweet, sour, spicy, bitter, and salty. It not only revitalizes the five internal organs, but it also generates and retains energy inside the body. Carry it in a tumbler and drink it as often as you need to stay full of energy.

Plum tea is better than medicine Plums are also known as green medicine for more than 3,000 years. They help relieve fatigue due to their catechin content for detoxification and sterilization.

매실
補藥보다 좋은 나무 열매



水의 흐름을 조화롭게 다스려 얼굴 위로 물결이 드리우니

설화수의 한방비법과 현대과학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여인의 열망을 담아낸 제품들은
잡힐 듯 말 듯 미미하던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기 좋게 실현한다. 피부 속에 수분을 채우고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 여름이 두렵지 않은 견고한 강인함을 선사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류로 드 플로디아

직접 불어서 만들어 진마다 각기
개성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빗살
무늬 잔은 이찬우 작가 작품으로
엘스토어&KCDF 갤러리.

수울 크림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뜨거운 태양열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수분 크림으로, 시원한 제형으로 끈적임없이 산뜻하게 발리는 것이 특징이다.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수액 성분은 달아오른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며
피부 사이사이에 풍성한 수분감을 선사한다. **How to Use** 아침저녁 손질 시
에센스 사용 후, 은행 한 알 크기를 손바닥에 덜어 피부 결에 따라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얼굴에 水 자를 그리듯 5개의 점을 누르면서
마사지하여 제품의 피부 흡수율을 높여준다.

수올선크림
Hydro-Aid Moisturizing Lifting UV Protection Cream

수올선크림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항상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며 탄력을 강화하는 수분 선크림이다. 한방 해조 추출물을 캡슐로 만든 수올환과 항염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황금 추출물은 여름철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일등공신 성분들이다. **How to Use** 아침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 500원 동전 크기 정도로 덜어낸다. 깨끗한 손가락으로 얼굴 위에 내용물을 고루 바른 뒤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른다.

수올미스트
Hydro-Aid Moisturizing Lifting Mist

뿌리는 순간부터 피부를 위한 힐링 타임이 시작된다. 마치현 추출물과 지황 추출물 등 농축된 한방 성분이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 에어컨 바람 등 외부 요인으로 거칠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준다. 자연의 내음을 그대로를 담은 허브 향은 피부는 물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How to Use** 세안 후 토너 대응으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뿌려준다. 20cm 떨어진 위치에서 눈을 감고 뿌릴 것. 메이크업을 한 후에도 사용 가능한데 너무 많이 뿌리면 파운데이션이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 3~4회 정도가 적당하다.



6각형 헥사곤 모양의 꽃살은
한국의 전통 패턴인 꽃 창살을
모티프로 하여 디자인한 인테리어
모듈 제품으로 돈원필 작가 작품.

소선보크림
Renodigm EX Dual Care Cream

한낮의 열기에 계속 노출되면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붉은기가 돌고 건조함이 심해져 주름 생성과 탄력 저하 등의 노화현상이 일어난다. 소선보크림은 이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다. 즉 열을 차단하여 낮 시간 동안 진행되는 피부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는 혁신적인 데이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젊음을 유지시키는 피부 온도 31℃를 지켜준다. **How to Use** 아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다. 1~2회 펴핑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를 돕는다.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준 유리
오브제는 양유원 작가 작품으로
모모와니, 굴꼭이 멋이 가득한 유리
주병은 이찬우 작가 작품으로
엘스토어.



수유크림 진정한 아름다움은 수수의 원활한 흐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한결같은 진실이다. 계절과 피부 타입을 초월해 피부에 충분한 촉촉함을 선사하는 수유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에 수분 그늘을 형성, 일상에 지친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 주며 하루 종일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어 준다.

소선보크림 일조량이 길어지는 여름에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 제품이다. 장기간 지속적인 외부 열 자극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자외선 차단은 물론 적외선으로 인한 외부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낮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완벽하게 지켜준다. S

Hydro-Aid Moisturizing and Soothing Cream It is a timeless truth that real beauty comes from the smooth flow of water. Hydro-Aid Moisturizing and Soothing Cream delivers ample moisture regardless of the season and skin type. It comfortably refines tired skin to leave it full of life all day.

Renodigm EX Dual Care Cream Extended and regular exposure to heat is a direct cause of skin aging, but Renodigm EX Dual Care Cream blocks UV rays and protects the skin from the heat stimulation of infrared rays. It perfectly protects the skin from all aggressors during the day.

자연 위에 그려진 낭만 디자인

Puglia

폴 리 아

에디터 권자에 사진 토크 이미지

풀리아에선 모든 것이 여유 있게 그리고 천천히 흘러간다.
역사가 만들어놓은 고풍스러움은 거리 곳곳에 아름다리 살아 있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어우러져 또 다른 맛을 만들어낸다.
낭만 방랑객들이 꿈꾸는 여행지이자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디자인으로,
풀리아는 늘 살아 있는 '변화'를 모색한다.





〈론리플래닛〉은 2014년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올해 최고의 여행지로 이곳을 꼽았다. 거센 파도가 부딪히는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레스토랑으로 세계적인 절벽 다이빙 선수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 바로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풀리아(Puglia)다. 시칠리아로만 대표되는 남부에서 숨겨진 보석처럼, 그러나 숨겨진 곳 치곤 너무나 아름다운 휴양지인 풀리아는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디자인 속에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감성을 더하며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바다를 향해 ‘킵’을 하는 듯한 이탈리아 반도는 마치 여자의 부츠처럼 생겼는데 부츠의 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아드리아 해와 에게 해에 둘러싸여 있다. 크리스털 빛 바다와 몇 백 년 된 시구가 이어지는 훌륭한 해변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은 온통 초록이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넓게 그리고 길게 펼쳐진 올리브 밭, 하늘로 치솟은 거목들은 완만한 구릉 가득 조밀하게 분포해 있다. 풀리아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농업지대인 만큼 질 좋은 올리브 외에 파스타용 밀가루, 와인용 포도, 아몬드가 유명하다. “본 조르노!” 밝고 경쾌한 이탈리아 남부식 인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가장 먼저 풀리아의 대표적인 풍경이기도 한, 자연이 디자인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새하얀 집들이 모든 이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몇 백 년의 시간 동안 바람과 파도에 깎이며 거칠게 형성된 절벽 위로 마치 물감이 서서히 번져 나가듯, 갈색에서 흰색으로 만들어진 집들은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가 지은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원래 있었던 가족들이 주변 풍경들과 어우러지며 그 자체로 훌륭한 건축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풀리아에 세계적으로 이름값을 하는 유명 건축 디자이너나 화가, 혹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특별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유서 깊은 건물들로 빼곡한 구시가지가 있는 알베로벨로에서부터 역사성을 간직한 디자인 감성을 물

1 카스텔 델 몬테는 풀리아 주 제국의 남쪽 끝에 세운 팔각형 건물로 기하학적인 설계로 유명하다.

2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다.

—
This place was acclaimed as ‘the place you must visit’ by <Lonely Planet> and ‘the best travel destination of the year’ by <National Geographic> in 2014. It is famous for a restaurant just off the cliff surrounded by blue waves and a favorite spot of the world’s best cliff divers. This is Puglia in South Italy. While South Italy is most known for Sicilia, Puglia is a hidden gem that is just too beautiful for words. It presents a unique beauty by combining nature-made designs with man-made sentiments.

The Italian Peninsula looks like a woman’s boot that seems to kick the sea, and Puglia is at the boot’s heel. It is surrounded by the Adriatic Sea and the Aegean Sea, and you can find a number of great beaches with crystal seas and sand dunes that are hundreds of years old.

What captures your eyes first is Puglia’s signature view: the white houses sitting on natural cliffs. The houses turn from brown to white, as if watercolor paint slowly spreads over the rough cliffs that have been carved by winds and waves for hundreds of years. Amazingly, the houses were not built by famous architects or designers. These are old homes that have blended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s to become outstanding architectural designs all by themselves. Puglia does not boast of masterpieces by renowned architectural designers, painters, or artists, but Alberobello cherishes the old town that is filled with historical buildings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You can feel the sentiment of historical designs.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technique of Alberobello from the 7th century is known as the ‘Trulli’, and many

3 원통형의 트롤리 가족들 내부에서는 오너의 감각으로 리노베이션된 독특한 인테리어를 볼 수 있다.

4 7세기에 시작된 트롤리 건축기법으로 지어진 집들.





고대의 벽돌 건물로 둘러싸인 브린디시 시가지에는 고대의 문명과 현대의 감성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다.

선 느낄 수 있다. 7세기에 시작된 알베로벨로 지역의 건축기법을 '트룰리'라 부르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트룰리도 제법 많은 편이다. 구 시가지의 뒷골목을 걷다 보면 원추형의 지붕을 올린 원통형 가옥들 사이로 벽난로에서 장작을 태우는 냄새가 밀려들기도 한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대성당과 함께 오토란토 해협 너머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는 역사적인 고기잡이 항구인 트라니, 고대의 벽돌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브린디시, 선사시대 벽화를 품고 있는 이탈리아 최동단 마을 오토란토, 지도에서 발꿈치 끝까지 가면 다다른 갈리폴리는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운 해변에 있다. 물이 수정처럼 맑은 이오니아 해안은 또 어떠한가. 맑은 날이면 그 아름다운 물빛으로 눈부실 지경이다. 역사적인 조선소에서부터 어떤 수식어라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백사장, 수제 파스타를 맛볼 수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폴리아, 도심 속 복잡한 삶의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천혜의 디자인 감각을 바로 가까이에서 '날것' 그대로 느낄 수 있다. S

people are still living amidst the Trulli creations. Walking along the alleys in the old town, you will encounter the smell of wood burning in fireplaces of cylindrical homes with cone-shaped roofs. Other nearby towns include Trani, a historical fishing town with a dramatic cathedral and a picturesque view of the Otranto Strait; Brindisi, a town with an array of ancient brick buildings; Otranto, the easternmost village in Italy with murals of the prehistoric times; and Gallipoli, the town at the end of the heel on the map with a breathtakingly beautiful beach. How about the coast of Ionia with its crystal-clear water? The beautiful reflections of light on the water truly sparkle on a clear day. Puglia has a historical shipbuilding plant, a beautiful beach whose beauty is indescribable, and a family-owned restaurant specializing in home-made pasta. You can step away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urban living and feel the 'raw' designs created by nature up cl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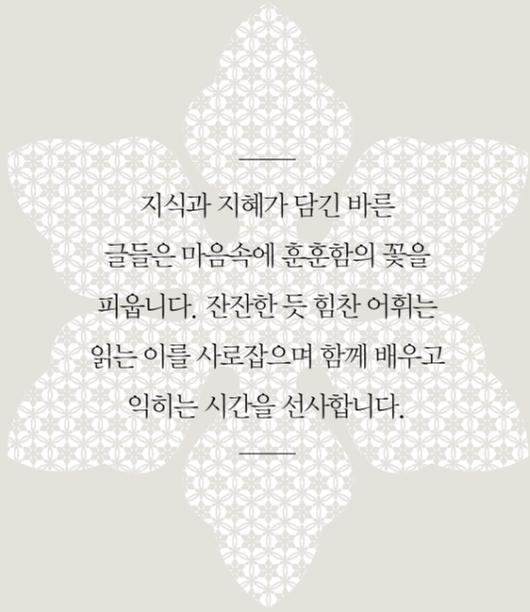
Sulwhasoo



열이 만든 칙칙함을 걷어내 얼굴 가득, 맑고 투명한 빛을 담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화이트닝 케어를 꾸준히 해도 왜 피부는 계속 칙칙해 보일까요?
그것은 열로 인해 녹은 콜라겐이 피부 속에 노란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열이 만든 칙칙함을 지워,
맑고 투명한 피부를 완성하는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세계 최초 인삼 미백 성분을 함유한 자정삼백단™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당신의 얼굴에 맑고 투명한 빛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지식과 지혜가 담긴 바른
글들은 마음속에 훈훈함의 꽃을
피웁니다. 잔잔한 듯 힘찬 어휘는
읽는 이를 사로잡으며 함께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름



꽃 한 송이라도 의미를 담아

플로리스트 정성모

온갖 트렌드의 중심인 뉴욕에서 플로리스트로 명성이 자자한 한국인이 있다. 자신만의 플라워 디자인으로 뉴욕의 셀러브리티와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플로리스트 정성모 선생. 그에게 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기쁨이며 감동이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전재호

한국인 플로리스트, 게다가 남성 플로리스트가 뉴욕의 중심가에서 예술적인 플라워 디자인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유명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와 <가십길>, 영화 <바닐라 스카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등 방송과 할리우드를 넘나들며 화면 속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플로리스트 정성모 선생 이야기다. 그가 뉴욕 첼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플라워숍 '도로스 아넥스(Doro's Annex)'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와 할리우드 배우들이 매일 혹은 매주 방문하는 곳이다. 그는 뉴욕 삭스 피프스 에비뉴(Saks Fifth Avenue) 백화점의 대표 플로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이런 화려한 경력의 정성모 선생도 처음부터 꽃과 인생을 함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모가 계신 뉴욕으로 이주했어요. 그때 이모님이 도로스 아넥스라는 플라워숍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꽃과 맺은 첫 인연이에요. 어느 날 유명한 가수의 결혼식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플라워 장식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거대한 규

모와 콘셉트에 반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바로 플로리스트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회계학 전공을 살려 회사에 다녀왔죠. 하지만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던 꽃에 대한 열망 때문에 큰 결심을 하고 플로리스트의 길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정성모 선생의 이모님은 자신이 플라워숍을 운영하지만 조카가 플로리스트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생은 꽃을 만지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만냥 재밌었다고 한다. 잠을 서너 시간만 자도 지칠 줄 모르고 열중했다. 게다가 사람들의 호응도 날로 좋아졌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뉴욕 커들이 반한 플로리스트

1980년대 뉴욕의 플라워 시장은 동양인만 보면 무조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꽃도 잘하고 조경도 잘한다고 여겨지던 시절, 그는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플라워 디자인을 선보였



단아한 선과 색이 돋보이는 화병 및 식기 모두는 이도.

다. 어렸을 때 보았던 '사군자四君子' 등을 연상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자, 뉴욕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찾아주는데, 피곤한지도 모를 정도로 신명 나더라고요.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항상 만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나뭇가지 같은 소재를 처음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빛나무 등의 긴 나뭇가지로 심플하면서도 스케일이 큰 플라워 디자인을 하니, 반응이 좋았고 저를 찾기 시작했지요. 디자이너 브랜드와 쇼룸도 많이 하고 파티도 많이 진행했어요. 그러다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삭스 피프스 에비뉴 백화점 전속으로 전체를 다 맡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뉴욕 패션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뉴욕에서 유명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다섯 살 꼬마.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같은 미국의 마더스데이(Mother's Day)에 1달러를 가져와 장미 한 송이를 달라고 하던 작고 양증맞은 꼬마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거대한 규모의 셀러브리티들과의 작업보다 이렇게 정서적인 면을 건드리는 에피소드가 오랫동안 기억

에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감 어린 성격과 달리 자신의 실수는 쉽게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이기도 하다.

“항상 어떤 작업을 해도 100% 만족하지 못해요. 100%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만약 제 작업에 끝잘 만족했다면 아마 플로리스트를 벌써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순간을 제대로 기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한 송이를 꽃더라도 의미를 담으려고 하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쁜 것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꽃을 대하고, 거기에 유니크한 개성을 지니면서도 우아함을 갖춘 정성모 선생의 꽃 다루는 감각은 뉴욕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이모님에게 물려받은 플라워숍 '도로스 아벡스'도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다 지인들의 권유로 2009년 한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국에 진출하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의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실감했어요. 웨딩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신부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 온 그림을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드레스를 입을 거야, 부케는 이 꽃으로 할 거야 하는 열망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결혼을 준비하는 한국 신부들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등을 물어보면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 오히려 반문해요. 심지어 ‘귀찮으니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면 플로리스트로서 조금 안타까워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형식적인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주체하는 사람 모두 의미 있게 행복한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일생의 행복한 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꽃이 필요한 거잖아요. 조금 더 충만한 파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캐릭터를 잘 알지 못하며,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에 사는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 그래도 최근 들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제대로 즐기고 축복

해주는 문화가 하나들 생기는 것 같아 한편으로 안심이 되기도 한다. 갈수록 플로리스트의 역할도 중요해질 터. 그는 2009년부터 한국의 '도로스 아벡스 플라워 스쿨'에서 플로리스트 수업을 진행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

“꽃을 이해하기보다는 기술적인 것에 치우친 한국 플라워 스타일링 문화에 아쉬움이 컸어요. 예전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플로리스트 교육에 갈증이 심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후배를 양성하고 있어요. 나아가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현재 여러 제자들이 같이 일하거나 미국 사회에 진출해 있어요.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서 뿌듯하고 흡족해요.”

그는 제자들에게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가능한 한 꽃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림을 많이 보면 그림 보는 안목이 생기듯이 꽃도 마찬가지이다. 계절에 따라 시시때때로 피고 지는 꽃을 자주 보고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꽃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정성모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꽃을 꽃는 데 정해진 방법은 없다는 것. 갖난이기 다루듯 꽃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 꽃과 식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안목, 그리고 꽃을 꽃는 자신이 보기에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 등, 스스로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찾은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쉬운 것이어야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꽃이 주는 선물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또 어떤 행사를 위해서 꽃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념일에 꽃이 제일 많이 필요하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도 꽃을 사요. 어제 튤립을 샀어도 오늘 또 튤립을 사고 싶으면 구입해서 거실 탁자 위에 놓기도 하고, 다음 날엔 욕실에 가져다 놓기도 해요. 그들은 꽃을 구입하는 순간, 그 찰나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꽃을 자주 접하는 문화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꽃을 사고 가까이 두는 일을 생활화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모 선생은 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많은 사람이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꽃을 만지다 보면 순수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갈수록 원예치료가 주목받는 것도 치유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또 자연의 향기와 켄리는 우울, 불안,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희망, 활력, 편안함 같은 감정들로 바꿔준다. 무더위로 쉽게 짜증이 나는 여름날을 가뿐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꽃으로는 블루나 퍼플 계열의 꽃을 추천한다.

“여름에는 델피니움같이 블루 계열의 시원한 컬러가 상쾌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밝은 오렌지나 옐로 컬러의 꽃을 포인트로 사용해도 좋고요. 레몬, 라임 등 감귤류 과일도 풋풋하고 싱싱한 느낌을 곁들여도 좋아요. 여름에는 복잡한 것보다 심플해야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쪽쪽 뻗는 느낌으로 단순하게 꽃는 걸 추천하고, 트로 피컬 이파리를 활용하거나, 옥잠화 같은 수생식물을 공간에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성모 선생은 앞으로 실무보다는 교육과 컨설팅에 좀 더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새로운 시장인 중국에 도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한강 다리 중 하나를 통째로 빌려 꽃으로 장식한 뒤 하루 종일 꽃과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파티를 상상하기도 한다. 살면서 작긴 크긴 ‘NO’ 해본 적이 없다는 정성모 선생, 플로리스트로서의 인생과 꽃에 대한 철학이 더욱 만개滿開하기를 기대해본다. S



일상을 담은 정갈한 살림 도구

우리 선조들이 주로 음식을 담거나 바느질 광주리로 사용하던 합습.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름다운 무늬와 형태로 귀금속을 보관하거나 장식용 오브제로 더욱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질박한 운치와 담백한 멋으로 일상용품을 담은 실용적 미감을 전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디아

그릇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모양, 재질, 장식 등에서 유행의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난다. 무언가를 담기 위한 용기容器로서의 기능 외에도 시대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옛사람들의 일상과 예술적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운두가 그리 높지 않고 둥글넓적하며 덮개가 있는 그릇을 총칭하여 '합습'이라 부른다. 크기에 따라 큰합, 중합, 작은합, 알합(아주 조그마한 합)이라 하며, 세 개의 단합을 크기별로 차등을 두어 한 세트로 만든 것을 '삼합'이라고 한다. 합은 덮개를 완전히 들어내어 분리할 수 있는 상자 같은 것으로, 조선시대에 다양한 재질과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흔히 놋쇠로 만들었으나 궁궐에서는 은으로 만든 은합을 사용하기도 했다.

조선 중기에는 합이 양반가는 물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실생활 도구로 널리 쓰이며 매우 보편적인 그릇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놋쇠로 만든 합이 수요가 늘어났고,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통적인 유기 제작방법인 '방짜기법' 외에 손쉬운 주물기법으로도 합을 만들었다. 그래서 부유한 양반가는 방짜 합을 많이 사용하였고 서민들은 주물 합을 사용했다.

풍요로운 맛과 여유로운 멋,
아름다운 예를 담다

합의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기능은 음식을 담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합에는 국수장국, 떡국, 약식, 밥, 찜 등 따끈하게 먹는 음식을 주로 담았다. 밥을 담는 '반합飯盒'과 반찬을 담는 '찬합饌盒'이 대표적인 합의 형태다. 밥을 담던 '백자반합(15세기 전기, 보물 제806호)'과 '분청사기 귀얄문반합(15~16세기)'은 조선 전기의 도자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합은 이바지 음식을 담아 보낼 때도 사용하였다. 예로부터 혼례를 치르고 난 후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양가에서 큰상을 차리고 이를 각각 신랑과 신부 댁에 보내는 풍속을 '상수床薦'라 하였는데, 이것이 차츰 사라지면서 이바지 음식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바지는 잔치를 뜻하는 '이바디'에서 변화한 말로, 정성 들여 음식 등을 보내는 일이나 그 음식을 뜻한다. 이렇게 격식을 차려 합에 넣은 음식을 보내면서 신랑과 신부 댁, 서로간의 식생활 차이를 좁히는 데 참고가 되게 하였다.



각이 진 형태로 수작업한 왕골 바구니는 강화화문석으로 근대화상회, 심단으로 쌓거나 큰함에 넣어 함께 보관 가능한 왕골삼합은 왕자골강화화문석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합은 물론 장식품으로도 손색없다. 양구 백토와 뱃나무로 제작한 3단 도자합은 신경균 작가 작품으로 아름답기.

합은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수납 도구이기도 하다. 장신구, 화장품, 바느질 도구 등 다양한 생활용품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때문에 여성의 취향이 반영되어 화려한 장식을 하거나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추기도 했다. 합은 또한 조선 중기 이후 선비들의 사랑방 기호품으로 등장한 담배를 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였다. '연초합'이라 불리며 담배, 담뱃잎, 재떨이 따위를 담아두었는데 돌과 유리, 나전칠기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특히 양반들은 편지나 제례 문서 등 각종 문서의 보관함으로도 합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자연스러움과 절제를 중요시한 선비들의 미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장식이 적고 단순한 모양이 주를 이루었다.

선조의 멋과 슬기로움이 담긴 왕골 꽃삼합

여름에 유독 눈에 띄는 꽃삼합은 왕골로 만든 합이다. 왕골은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재배하던 식물로 높이 80~150cm 정도 자라는 1년초 공에 작물이다. '완초莞草' '현완懸莞' '석룡초石龍草'라 부르기도 하는데 돛자리, 방석, 합 등을 만드는 전통 소재이다. 왕골로 여러 가지 생활 용품을 만드는 사람을 '완초장莞草匠'이라 하는데, 이렇게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삼합은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사에 쓰이는 귀한 물건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왕골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통풍이 잘되어 여름에는 눅눅하지 않으며 시원하고, 겨울에는 냉기를 막아주어 음식을 보관하는 데 요긴하게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었다.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된 왕골 공예품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요한 교역품이 되기도 했다. 특히 강화 지역의 화문석(물들인 왕골로 꽃무늬 등을 놓아 짠 돛자리)은 청나라와 일본에 보내는 선상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강화도는 습하면서도 따스한 기후 조건이 왕골이 자라기에 알맞아 우수한 품질의 왕골이 생산되었다. 강화도의 순백색 왕골로 만든 왕골 공예품은 형태나 소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기품 있는

멋이 살아난다.

왕골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다양한 공예품을 창작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꽃삼합은 손으로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다. 왕골 네 날을 반으로 접어 총 여덟 개의 날줄을 정자형으로 엮은 후, 두 개의 씨줄을 엮는 기법으로 만든다. 손으로 직접 씨줄과 날줄을 엮어내는 것은 삼합을 비롯해 화방석과 송동이(작은 바구니) 등 크기가 비교적 작은 것들이다. 여기에 꽃, 태극, 봉황, 수복壽福 등 무병장수와 복을 바라는 길상의 의미를 담은 각종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였다. 크기는 대·중·소 세 가지로 제작하여 하나의 세트를 완성한다.

합은 여전히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귀중한 물건을 간직하는 수납 도구의 쓰임새를 담당한다. 무언가를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실용성을 견지한 장식 오브제로서 현대의 실생활에서도 접목해 사용할 수 있는 공예품이다.

형태적 아름다움의 계승과 현대적 감각의 만남

합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계승하면서 소재의 변주나 작가의 독창적인 감성을 담아 모던하게 재해석한 작품들이 금속공예, 도자공예, 칠공예 작가의 손에서 태어나고 있다. 절제된 아름다움에 작가의 숨결이 더해져 완성된 합은 묵직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트리엔날레 디자인 전시관에서 열린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5> 전시회에서도 조기상 디자이너와 김수영 장인이 협업한 유기 삼합, 최상훈 장인의 나전합 등이 예술성과 쓰임새를 갖춘 작품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전통에서 이어받아 평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해온 공예 작가들의 고집과 끈기의 산물産物은 현재의 우리를 읽을 수 있는 문화이며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이다. 그리고 과거만의 가치가 아닌 새로운 쓰임새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일이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통의 가치는 늘 존재해야 하므로, S

미술에서 미술로 이어지는 대화

페르난도 보테로는 다스 낯선 남미 미술을 세계화한 콜롬비아의 화가다. 그의 이름을 세계에 최초로 알린 작품은 <12세의 모나리자>다.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원작을 만화같이 귀여운 형태로 변형시켜 대중 앞으로 확 당겨온다.

에디터 윤연숙 글 이선영(미술평론가) 도움 주신 곳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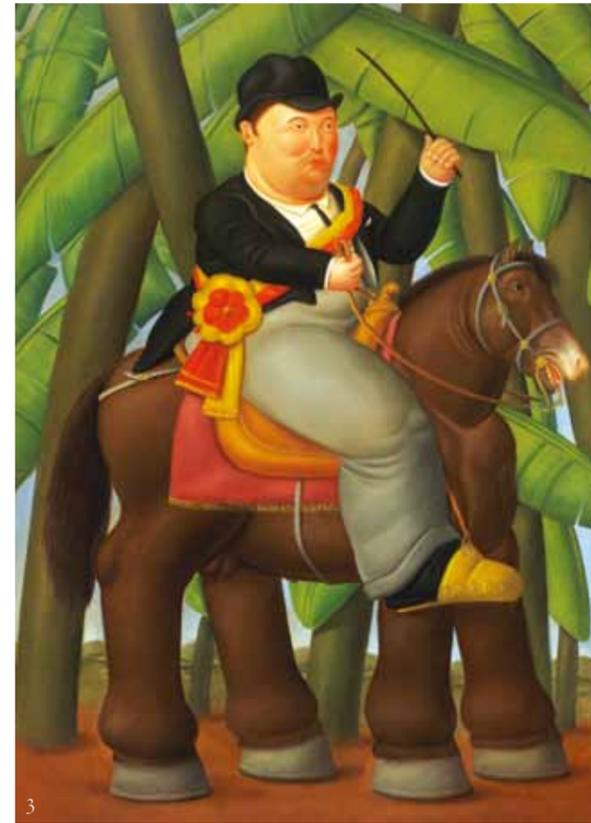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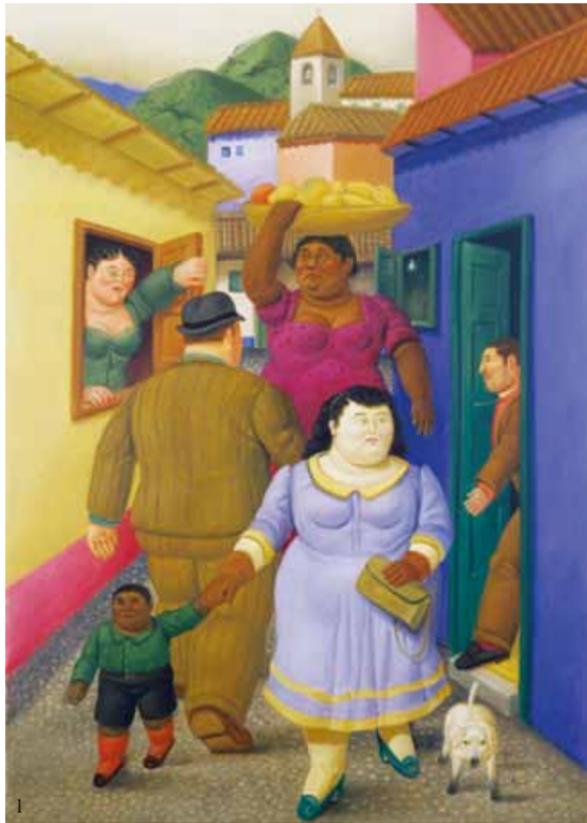
친근하게 다가오는 통통한 도상들

원작의 친근함이 문화사 교육과 교양 학습의 무한반복에 따른다면, 보테로의 작품에서 친근함은 저 멀리의 성스러운 광휘에 잠겨 있는 도상을 일상적 친근함으로 옮겨 온 데 있다. 물론 그의 작품도 이제는 유명해져 미술사의 반열에 올라 '살아 있는 거장'으로 칭송되고, 그가 참고했던 작품만큼이나 어떤 분위기(Aura)를 가지게 된 점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보테로는 모나리자뿐 아니라 미술사적 전거를 가지는 유명 작품들을 참고로 그 등장인물을 통통한 스타일로 각색한다. 페르낭 레제 같은 종합 입체파의 그림처럼 굽적굽적하고 단순화된 인체 표현은 조각적이면서도 기념비적이다. 뚱뚱하고 귀여운 이미지들이 작품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코드를 통해 그가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사실이다. 엽기 문화나 코미디물이 아니면 등장하기 힘든 뚱뚱한 여인들은 보테로의 작품에서 주인공이 된다. 여성뿐 아니라 등장하는 무생물 까지도 모두 통통하지만, 여성의 표현이 유독 유머러스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여성에 대한 상과 관련된다. 원시 시대 돌조각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원래 미인은 현재 대중문화의 여주인공 같은 말라깽이들이 아니었다. 루벤스나 르누아르의 작품 속 풍만한 여인들은 투명한 피부 아래에서 약동하는 생명력이 화사한 색채로 표현되었다. 현

재처럼 마르고 키 큰 여자들이 미인의 기준이 된 것은 시각성이 강조되는 스펙터클한 문화에 힘입은 바 크다. 가장 근원적인 감각인 촉각과 달리, 시각은 시선이 훑어 내릴 수 있는 시원한 비율을 원하는 것이다. 가장 지적하면서도 추상적인 시각성은 이데아적 원형을 가지면서도 시대의 미의식에 따라 변화한다. '그림을 바라보는 기쁨'의 유래를 '생의 기쁨'에 놓는 보테로는 명화 속 주인공들의 매력을 유머 감각에 실어서 극대화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발레리나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고도의 반자연적 자세를 취하는 진지한 인물들이 체격에 비해 무리한 동작을 취하는 코미디처럼 변형된다. 작품 속 영부인과 대통령은 권력의 잔혹함과 화려함은 물론 서민적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다가온다. 과거 초상화의 주인공이던 까탈스러운 왕족이나 귀족들은 이웃의 수더분한 아줌마나 장난기 넘치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모한다. 그들은 단지 보이는 존재를 넘어 관객에게 농담을 걸어 올 것 같다. 그가 고전을 해석한 작품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주변성에 있다. 보테로는 체계적으로 그림을 배울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작가는 '세계의 명화' 도판을 모델로 하여, 독학으로 거장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화업을 시작했다. 그러한 방식으로 보테로는 예술사에 관통하는 원칙인 대화를 대중과의 소통으로까지 확대시켰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를 따라서 AFTER PIERO DELLA FRANCESCA(DIPTYCH), 캔버스에 유화, 204 x 177cm, 1998



보테로의 주된 대화 방식은 패러디이다. 린다 허친은 <패러디 이론>에서 패러디가 인식되고 해석될 수 있으려면 기호 입력자와 해독자 간에 공유된 기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테로에게 미술사는 기호 공유가 일어나는 장이다. 두 개의 텍스트가 교차되어 있는 그의 작품은 상호 텍스트적이고 상호 주관적이다.

고전과의 대화를 통해 획득한 개방적 언어

보테로는 은밀한 자기참조성이 아니라, 적나라한 참조를 통해 예술을 감싸고 있는 신비주의를 유쾌한 대화적 상상력으로 변모시켰다. 그의 통통한 주인공들이 독방에 갇힌 음울한 주체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는 점은 대화가 가지는 개방성을 예시한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할 원작들은 보테로에 의해 “공인된 위반으로서의 패러디(린다 허친)”로 변형된다. 훌륭한 예술작품들은 무조건 수용해야 할 원형이 아니라, 매번 다시 쓰일 수 있는 개방적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고전과의 대화를 통해 획득한 언어로 그는 자신이 속한 현실을 그려냈고, 이는 <라틴> 시리즈에 잘 나타나 있다. 성스러움이 일상화된다면

일상 역시 성스러움으로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의 일상들은 조각적이고 기념비적인 양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근함이나 탄탄함조차도 환상적이다. 그것은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들이 사실주의가 아닌 것과 같다. 그럴듯한 환상이 일관된다면 그것 역시 현실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종교나 예술이 현실성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원작이 가지는 치밀한 구성의 독특한 형태 변형, 그리고 화려한 색채를 지닌 보테로의 작품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는 ‘왜 뚱뚱한 사람들을 그리는가’라는, 수도 없이 받았을 질문에 대해 “나는 뚱뚱한 사람들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이다. 현실, 그림, 그림에 대한 그림은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차원에 있다. 통통하다 못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인물들과 그들이 세팅된 방식은 환상적이다. 보테로가 구사하는 환상적 장치 중의 하나는 스케일의 변조다. 가령 그의 작품에서 정물적 대상은 본래보다 크게 확대되어 있다. 과일이나 꽃같이 자그마한 대상들은 이러한 변형에 의해 관능성과 기념비성을 획득한다. 꽃과 과일, 약기 등이 놓여 있는 정물화는 삶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고전적 소재지만, 지역 산물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국적’ 연출이 가능한 장르이기도 하다. 변형은 작품의 주요 원리인데 여기에는 규모의 변형도 포함된다. 작품 <피에로 텔라 프란체스카를 따라서>(1998)에 나타나듯이, 작가가 흥미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거장의 작품은 원래 47×33cm의 크기였는데, 204×177cm로 확대했다. 원작의 밀도는 확대를 통해 더 강조되고 있다. 유럽에 전거를 두는 작품들보다 더 중요한 보테로의 작품 목록은 라틴 아메리카의 뿌리가 드러나는 소재들이다. 그는 밝은 색채로 고향 마을의 집들과 바로크식 성당, 성직자들, 거리의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들을 담아낸다. 압축된 원근법은 배경과 인물, 사물들을 동화 속 삽화처럼 붙여놓는다. 투우나 서커스는 남미에서 삶의 일부를 이루는 중요한 문화이다. 어린 시절 투우 학교를 다니기도 했던 보테로에게 투우는 그림과 현실 모두에 걸쳐 있는 소재였다. 마법의 원 안에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무대인 서커스 역시 고향 마을 메데인에서의 추억을 되살린다. 그의 작품에서 예술의 역사를 비롯한 기억은 중요하다. 개인적 기억이든 문화적 기억이든,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보테로의 작품은 과거가 현재에도 지속되며, 새로움을 낳는 오래된 미래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

1 거리 THE STREET, 캔버스에 유화, 204 x 177cm, 2000
 2 발레 바의 무용수 DANCER AT THE BARRE, 캔버스에 유화, 164 x 116cm, 2001
 3 대통령 THE PRESIDENT, 캔버스에 유화, 203 x 165cm, 1989
 4 정물 STILL LIFE WITH BLUE COFFEE POT, 캔버스에 유화, 122.5 x 102.5cm, 2002



무명처럼 자연스럽게

바느질 작가 우영미

침구를 만드는 업을 하고 있지만 우영미 작가의 이불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그의 작업실인 '규방도감'에서 무더운 여름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어루만져줄 것 같은 이불 한 채와 마주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삼청동 초입, 작은 골목길의 아담한 한옥에는 무명, 명주, 인견, 모시 등의 천과 알록달록 고운 색을 뽐내는 오색실이 그득하다. 침구, 방석, 옷, 보자기 등 다양한 리빙 소품에 전통 천연 소재와 천연 염색, 자수 등을 접목하여 모던하고 편안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우영미 작가의 작업실 겸 쇼룸인 '규방도감' 풍경이다. 한옥과 지극히 한국적인 소품을 사랑하는 그는 요즘 다 성장한 자녀와 배우자의 배려로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평소 하고 싶었던 작업에 더욱 열중하고 있다.

“삼청동 한옥으로 작업실을 옮긴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어요. 그 세월을 기념하고 앞으로 규방도감이 나아갈 길을 생각하며 앞치마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거문고를 전공하는 딸이 연주를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는 편안한 문화행사 같은 거예요. 10년 전 한옥을 작업실이자 쇼룸으로 꾸미면서, 비 오는 날이면 지인과 고객들을 불러 부침개를 함께 부쳐 먹는다면, 바느질이나 전통 음식을 배우는, 문화가 있는 친근한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바람을 이제 조금씩 실천하려고 해요.”

그저 바느질이 좋아서 독학(獨學)으로 시작한 것이 업이 되었다는 우영미 작가의 바느질 솜씨와 전통 스타일의 침구를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도록 담백하게 풀어내는 감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결하고 단아한 모양새와 현대 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쓰임새를 더했다. 그는 이불은 몸에 직접 닿으므로 속옷과 같기

때문에 예쁘기도 해야 하지만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명천으로 만들 이불이에요. 바느질을 하면서 옛사람들의 지혜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 무명천으로 만든 이불은 빨고 나면 새것 같아 오랫동안 사용해도 항상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불 아래를 누벼주면 세탁에도 강하고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통풍과 땀 흡수가 잘되어 피부에도 좋아요. 버릴 때가 되어도 썩어서 완전히 없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이렇게 무명 이불을 사랑하는 그가 애장품으로 내놓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견으로 만든 이불이다. 무명 이불은 사계절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지만,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촉감을 가진 인견 이불만 한 것이 없단다. 자수가 놓여 있는 인견천을 청량한 느낌을 주는 푸른 쪽으로 염색하고, 사방 테두리는 흰색으로 마감했다. 거기에 아기자기한 야생화 자수까지. 열대야 속에서도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할 만큼 포근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이불이었다.

우영미 작가는 이불 외에도 근대의 사기(沙器) 그릇을 모으기도 한다. ‘기쁠 희(喜)나 ‘복(福) 복(福)’자를 넣어 만든 옛 그릇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요즘 그릇과 달리 똑같은 모양이 없다. 자연스럽게 조금 찌그러진 것이 오히려 매력이다. 그에게 전통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실용이다. 우리가 전통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그 가치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규방도감의 문을 두드려도 좋으리라. S

하늘과 바다의 빛깔을 담다

푸른 바다 빛을 담은 청자와 구름보다 하얀 백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여놓는다. 고전의 향기를 품은 멋진 작품들은 실용성을 더하며 실생활에서 오브제가 주는 색다른 활기와 향기를 전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물감이 흐르는 모양을 그대로 살린 자연스러운 페인팅 문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꽃 한 송이 꽃으면 더 멋질 듯한 백자병 모티프 오브제는 신이철 작가 작품으로 근대화상회.



백자에 그려 깔끔하게 새겨진 블루 스트라이프가 경쾌함을 더한다. 다소곳이 쌓아올린 디저트 접시는 크기와 높이가 다른 3세트로 판매한다. 박정홍 작가 작품으로 LVS갤러리.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집 안 데코레이션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군더더기 없는 코발트 빛 굵 높은 접시와 컵은 이정미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파랗게 물들여진 바다 위로 하얀색 구름이 넘실대며 춤을 추는 계절입니다. 때론 태양이 너무나 강렬해 알미울 때도 있지만 이런 여름날의 '쫄쫄' 바닷가 풍경을 그대로 집 안으로 옮겨놓는다면 이보다 더 시원하고 아름다울 순 없겠지요. 인디고 블루, 라이트 블루, 다크 블루 등 푸른빛에도 서로 다른 명도와 채도로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조금씩 톤과 크기가 다른 오브제 3~5개 정도를 모아 창문가에 놓기만 해도 집 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가장 멋스러운 색이기도 한 하얀색은 전통의 선을 담아 더욱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에 푸른색 오브제들과도 소리 없이 잘 어우러집니다. 빨간색 오미자 냉차를 담거나 볼드한 유리병에 꽃 한 송이 꽂아놓는 센스를 담아 더위로 지친 집 안을 시원한 시각視感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세요. S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디아(문지윤, 황남주) 도움 주신 곳 근대화상회, LVS갤러리,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이세용도예, 가나아트센터, 테카르트, 엘스토어, KCDF갤러리, 우일요, 1250도씨



다소곳이 양전한 디자인이 백자와 잘 어우러진다. 말 모양으로 만든 손잡이가 작가의 남다른 감성을 전하는 디저트 디시 함은 이세용도예.



어여쁘게 핀 모란과 자연 식물들을 모티프로 만든 오브제는 수채화 기법 채색으로 친근감을 더한다. 골드로 포인트를 준 오브제는 이윤희 작가 작품으로 엘스토어.



맑은 물가에서 볼 수 있는 청명한 컬러감이 일품이다. 그릇을 얹어놓은 듯 유니크한 디자인의 1인 다기 세트는 김기태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볼드한 컵 디자인에 새, 식물 등이 프린트되어 자연스러움을 더한다. 컵 입구에 라운드로 처리된 금빛 장식이 포인트인 맘스컵은 2개가 한 세트인 제품으로 가나아트센터.



벽이나 액자에 넣어 걸어두면 훌륭한 장식용품이 된다. 세라믹 소재로 화이트 컬러가 주는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담은 커틀러리는 김하윤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접시의 흰과 라인이 서로 다르기에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소장 가치를 더한다. 심해의 모랫바닥을 연상케 하는 문양의 코발트블루 플레이트는 1250도씨.



힘찬 붓 터치와 기백과 백자의 고즈넉한 은은함이 연인처럼 잘 어울린다. 전통의 주병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주병 세트는 장식용품으로 손색없다. 테카르트.



모과나무에서 바로 딴 듯 자연스럽게 굴곡진 모양이 감탄을 자아낸다. 백자 소재로 도자의 결과 모양을 실려 칠한 장식용 오브제는 우일요.



유연하게 디자인된 접시 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꽃 모티프가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테이블 위에 꽃과 함께 세팅해두면 멋을 더할 오브제 접시는 엘스토어.

은빛의 눈부신 반짝임을 걷다

시원해 보이는 색감인 은빛, 즉 실버 컬러는 여름에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다. 온전히 실버로 된 오브제는 물론, 다른 소재와 갖가지 컬러감을 더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할 수 있다. 은은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은빛 물결의 향연.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심플하지만 우아한 멋이 흐르는 브로치. 곱디고운 결을 살린 나뭇잎 모양 위로 청아한 진주 한 알이 감각을 더한다. 김미진 작가 작품으로 가나아트센터.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정형화되지 않은 손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백자 표면에 은을 입힌 사각 실버 함은 귀중품을 담기에 훌륭하다. 김희종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마치 은빛 돛대 달린 푸른색 배를 보는 듯하다. 은과 블루 천연석으로 만든 유니크한 디자인의 브로치는 김준희 작가 작품으로 공평아트센터.

몸치장하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장신구'는 계절에 상관없이, 세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장신구가 여름이라는 계절과 만나 은빛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착용했을 때 시원한 색이라 여름철에 더욱 빛나는 실버 장신구들은 반지, 팔찌, 발찌, 목걸이 등 다양하게 선보여지죠. 특히 젊은 금속공예 작가들의 장신구는 특유의 감성을 담아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와나 단청 등의 전통 문양에서 모티프를 따서 만들기에 외국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실버 장신구 외에도 은빛 가득한 패션 소품들, 예를 들어 스카프나 가방들도 훌륭한 화룡점정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S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끌로디아(문지윤, 황남주) 도움 주신 곳 보고재, KCDF갤러리, 공평아트센터, 아원공방, 가나아트센터, 명인의 일



소담한 사이즈의 은 소재 빗은 단장하는 여인에게 필수 소품이다.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은은하게 빛이 나는 크리스탈 장식이 포인트인 스완 화이트 머리빗은 명인의 일.



은 소재가 주는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표현한 귀걸이. 닮은 듯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멋을 더하는 귀걸이는 김경희 작가 작품으로 보고재.



블랙과 실버의 세련된 컬러 매치 그리고 담수 진주와 세심한 세공 테크닉이 돋보이는 오브제로 구성된 목걸이는 황주희 작가 작품으로 보고재.



넘실넘실 춤을 추는 듯한 동적인 디자인이 여름날의 경쾌함을 선사한다. 청색과 백색 원석으로 장식한 은 브로치는 공평아트센터.



심플하지만 모던한 세련미를 자랑한다. 은과 골드필드 그리고 에지 있게 표현된 작은 수정으로 만든 기하학적인 라운드 필자는 민준석 작가 작품으로 보고재.



한없이 부드러운 실크 소재로 톤이 서로 다른 은빛과 옥빛이 서로 어우러지며 전체적으로 우아하게 완성된 스카프는 황혜미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올린 머리 위에 샤프시 꽃으면 머리 위에 어여쁜 꽃 한 송이가 피어난 듯하다. 은과 블루 플리워 오브제 그리고 작은 구슬로 장식된 뒤꽂이는 김영희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원 안에 무심한 듯 섬세하게 커팅한 작가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진다. 은빛과 금빛의 컬러감이 조화로운 진주 브로치는 엄기순 작가 작품으로 공평아트센터.



눈부시게 빛나는 실버 컬러가 돋보인다. 깊이감이 있는 타원형 펜던트 안에 나뭇잎 모양의 오브제로 멋을 더한 목걸이는 황주희 작가 작품으로 보고재.

세기를 넘어 오스트리아를 사로잡은 여인 엘리자베트

‘시시(Sissi)’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오스트리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엘리자베트. 그가 죽은 지 100년 이상 지났지만 오스트리아 어느 곳을 가도 그의 이야기와 초상화, 기념품 등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누구보다 아름다웠지만 불행한 삶을 산 엘리자베트의 생애는 지금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부인으로 당시 뛰어난 미인으로 유명했다. 게다가 유럽 최대의 왕실 가문 합스부르크(Habsburg)의 사람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결혼정책을 통해 거의 모든 유럽의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근세 유럽 왕정의 역사는 합스부르크의 역사이며, 그것은 1918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영주 막시밀리안 요제프 공작과 바이에른의 공주였던 루도비카의 둘째 딸로 태어난 엘리자베트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영, 승마 등을 즐기며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뛰어난 외모를 물려받아 커갈수록 눈에 띄는 미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친언니 헬레네와 결혼하기 위해 무도회에 참석한 이종사촌 오빠 프란츠 요제프 1세를 만나게 된다.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언니를 따라 나온 엘리자베트를 보고 첫눈에 반해 자신의 어머니인 조피 대공비에게 엘리자베트와 결혼하겠다고 말한다. 조피 대공비는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승낙하게 되었고 1854년 4월, 빈에서 엘리자베트와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 여기까지는 두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진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다. 하지만 그 후 엘리자베트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된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 조피 대공비는 엘리자베트에게 오스트리아 황실 예법과 역사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엘리자베트는 보수적인 자신의 이모이자 시어머니 조피 대공비와 갈등을 일으켰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 오스트리아 귀족들도 황실 예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엘리자베트를 은근히 멀리해 황실에서 답답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트가 딸을 낳았는데 조피 대공비는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조피라 이름 짓고, 엘리자베트가 너무 어리고 교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접 손녀를 기르겠다고 한다. 엘리자베트가 둘째 딸 기젤라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다 엘리자베트가 아들 루돌프 황태자를 출산하자 기젤라를 돌려주고, 루돌프를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조피 대공비와 엘리자베트의 사이는 건잡을 수 없이 나빠져갔다.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보다 자신을 환영해준 헝가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조피 대공비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길수록, 헝가리어를 배우거나 자신의 모든 시녀들을 헝가리인으로 교체하는 등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 또 헝가리의 안드라시 백작과 함께 헝가리 자치를 위해 노력했는데, 요제프 황제와 안드라시 백작을 설득하여 대타협을 이루게 된다. 1876년에는 사도 왕, 사도 왕비로 즉위식을 거행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엘리자베트는 헝가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인 루돌프 황태자에게 헝가리 왕위 계승권을 물

려주려 했다. 그러나 루돌프가 자살해버리자, 크게 상심한 엘리자베트는 막내딸 발레리와 함께 유럽을 떠돌게 된다. 그러던 중 스위스를 여행할 당시, 제네바에서 무정부주의자인 루이지 루케니의 칼에 찔려 사망한다. 왜 암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엘리자베트는 시신으로 오스트리아로 돌아와 카푸치너 성당(Kapuziner Kirche)의 황제 납골당(Kaisergruft)에 안장되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라 불리며 이렇게 드라마틱한 생애까지 더해지면서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실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메인 궁전인 ‘호프부르크 왕궁(Wien Hofburg)’에는 아예 ‘시시 박물관’을 조성하고 그녀의 삶을 기록해놓았다. 1992년에는 그녀의 삶을 재조명하고 ‘죽음’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만든 뮤지컬 <엘리자벳>이 탄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초연 이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엘리자베트의 일생을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 100년 전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S

1 Elizabeth, Empress of Austria, Franz Xaver Winterhalter, 1865
2 Queen Elisabeth of Hungary and Bohemia, Bertalan Szekely, 1869



엘리자벳 Elisabeth

모두가 동경하고 사랑했던 엘리자베트. 드라마틱한 그의 일대기에 판타지적인 요소인 ‘죽음(Tod)’이라는 캐릭터를 추가한 뮤지컬 <엘리자벳>. ‘죽음’이라는 어두운 소재를 ‘죽음과의 춤’으로 아름답게 형상화한 미하엘 쿤체의 기발함과 이에 어우러진 실베스터 르베이의 웅장한 음악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뮤지컬 <엘리자벳>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궁을 재현한 무대는 그 웅대함이 무대미술이 극치를 보여준다. 황실의 결혼식, 무도회, 왕의 대관식 등 화려한 신들은 관객을 압도하며, 황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조명들을 활용해 세련된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당대의 패션리더로 추앙받았던 엘리자베트가 입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의상들을 재현해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극작 미하엘 쿤체 | 작곡 실베스터 르베이 | 프로듀서 엄홍현 | 출연 옥주현, 조정은, 신성록, 최동욱, 전동석, 김수용, 최만철, 이지훈 | 일시 6월 13일~9월 9일 | 가격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 문의 EMK뮤지컬컴퍼니 02-6391-6333



홀리스틱 뷰티의 서막을 열다

The Beginning of Holistic Beauty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뷰티 리추얼을 통해 홀리스틱 뷰티의 세계로 초대하는 설화수. 세계 최초의 인삼 화장품으로 시작해 명실상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기까지, 설화수의 남다른 여정을 따라가 본다.

에디터 윤연숙

설화수는 조화와 균형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찾는 아시아의 지혜, 그리고 아시아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약용식물인 인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6년 세계 최초의 인삼 화장품 'ABC 인삼크림'을 세상에 선보이며 브랜드의 시작을 연 '설화수'. 한방 원료의 연구와 전통을 계승한 처방, <동의보감>의 7세 주기론에 현대 피부과학 기술을 접목시켜 설화수만의 고유한 처방을 담은 세계 최초 한방 화장품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다. 특히 1977년 출시한 윤조에센스는 최초의 한방 부스팅세럼으로 여성들의 뷰티 루틴을 바꿈과 동시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뒀으며, 진화를 거듭해 현재 4세대 윤조에센스가 설화수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최초의 한방 화장품 설화수는 글로벌 뷰티의 대명사로 불린 지 오래다. 2004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뉴욕 5번가의 최고급 백화점 버그도프굿맨(Bergdorf Goodman)에 당당히 입점했으며, 2011년에는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와 중국 대륙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했다. 2012년에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전역에 그 영역을 확장했다. 진출 국가들에서 연평균 80%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 설화수는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진귀한 원료와 남다른 처방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오늘도 홀리스틱 뷰티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S

Sulwhasoo's history began with Asian wisdom and ginseng, a medicinal plant that cherishes Asian wisdom, in search of value through Harmony and Balance. The Sulwhasoo brand made its first step in 1966 by introducing to the world 'ABC Ginseng Cream,' the world's first ginseng cosmetic. Released in 1977, First Care Activating Serum particularly registered a historic success as the first Korean herbal medicinal boosting serum. It has continued to evolve, and the 4th-generat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s currently solidifying the reputation of Sulwhasoo. The brand has also been a symbol of global beauty for a long time. Starting in Hong Kong in 2004, it confidently opened in Bergdorf Goodman, the high-end department store on 5th Avenue New York in 2010, and marched into the major cities in China in 2011, including Beijing and Shanghai. In 2012, Sulwhasoo reached out further across Asia to Singapore, Thailand, Malaysia, Vietnam, Indonesia, and Taiwan. Sulwhasoo has been widely beloved as Korea's leading beauty brand and a global luxury brand ever since its birth, boasting the precious ingredients and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convey Asian wisdom. It is still presenting the world its true beauty found on holistic beauty.



心身を 흥나게 하는 반가운 소식들

아시아의 지혜로 대만을 사로잡다

설화수는 6월 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윤조에센스 4세대 제품의 출시를 기념하는 론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세대 윤조에센스'의 대만 론칭을 기념하는 동시에, 2012년 9월 대만 진출 이후 현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윤조에센스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이 이날 행사에는 대만 미디어와 유통 관계자,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케니비와 대만 현지 여성들의 뷰티 멘토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케빈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설화수는 2012년 대만 첫 론칭 이후 2014년까지 연 평균 23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 현재 대만에서 네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만 내에서 럭셔리 스포츠로 손꼽히는 주요 백화점에 매장을 신설해 대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자작나무 수액으로 피부에 시원한 수분 그늘을 선사하다

설화수는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를 평온하고 촉촉하게 다스려주는 수분 진정 크림 '수울크림'을 출시했다. 2015년 6월 리뉴얼된 설화수 수울크림은 봄 비가 내릴 무렵 깊게 차오른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수액 성분으로 '피부 그늘'을 형성, 일상 속 외부 자극으로 달아오른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 준다. 또 설화수 대표 보습 원료인 맥문동 추출물과 새싹삼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 피부에 스며든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다. 업그레이드된 설화수 수울크림은 부드럽고 가벼운 제형으로, 피부에 상쾌하게 퍼지고 섬세하게 스며들며 은은하게 마무리되는 사용감을 선사한다. 또 숲 속을 거니는 듯한 청량하고 상쾌한 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준다. 50ml, 90,000원대



한방성분으로 보다 부드럽게 클렌징하다

설화수가 7월,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뛰어난 세정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순행클렌징오일의 대용량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설화수의 '순행클렌징오일'은 얼굴에 부드럽게 물링되어 메이크업 잔여물은 물론 모공 속 노폐물까지 없애주는 한방 클렌징 오일이다. 피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의이인(율무)과 진피(귤껍질), 피부 각질을 정돈해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로 바꿔주는 행인유(살구씨)가 주요 성분으로, 산뜻하게 클렌징해준다. 순행클렌징오일은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에 2회 정도 펴핑하여 클렌징하고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낸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기존 200ml에서 400ml로 업그레이드 된 넉넉한 용량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7월부터 한정수량 판매한다. 400ml, 70,000원대(한정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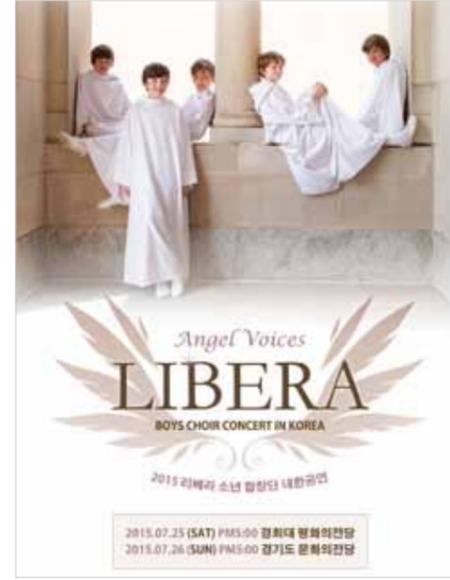


광복 7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아리랑>

천만 독자에게 사랑받은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 대형 창작 뮤지컬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일제강점기, 파란의 시대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담았다.

3년여에 걸쳐 기획 제작된 뮤지컬 <아리랑>은 12권의 소설 속 아픔의 역사를 감골택 가족사를 중심으로 재편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 정신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그린다. 특히 환란 속에서도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아리랑'의 다양한 변주를 포함하여 50여 곡의 음악이 기대를 더한다. 한국적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무대, LED와 조명을 이용한 스펙터클한 장면 구성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아리랑>은 뮤지컬 계에서도 특히 실력 있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의식 있는 양반 송수익은 서범석과 안재욱이 맡아 작품의 중심을 잡는다. 어지러운 시대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양치성 역은 항상 선한 역할로 존재감을 과시해 온 김우형과 카이가 출연하여 새로운 악역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고난과 유린의 세월을 몸소 감내하는 수국 역은 윤공주와 임혜영이 맡아 한국 여인의 강인함을 보여준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아리랑>은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으로 기억될 듯하다.

일시 7월 11일~9월 5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1577-3363



2015 리베라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리베라 소년 합창단이 한국을 찾는다. 소년 합창단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음색은 신비로운 화음과 어우러지면서 여름날 더욱 청명하게 다가온다.

영국을 대표하는 소년 합창단 리베라는 지휘자 겸 음악감독 로버트 프리즈만(Robert Prizeman)에 의해 결성됐다. 라틴어로 '자유'를 뜻하는 공연단 이름처럼 특정 학교나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클래식부터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른다. 자신들만의 색깔로 노래하는 이들의 음악은 유명 CF와 영화, TV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를 석권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공연 실황 DVD와 CD는 발매 직후 아마존 음악 합창 부문 앨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상투스(Sanctus)'를 비롯해 '워킹 인 디 에어(Walking in the Air)' '파 어웨이(Far away)' 등은 귀에 익숙하다. 소프라노 소년들이 펼쳐내는 순수하고 환상적인 화음은 이제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을 전해 듣는 이의 감동을 자아낸다.

일시 7월 25~26일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25일), 경기도문화의전당(26일) 문의 02-548-4480

뮤지컬 <데스노트>



흥행성과 작품성을 검증받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데스노트>는 한국인 최초로 웨스트엔드에 진출한 흥광호와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준수, <위키드> 이후 다시 한무대에 서게 된 정선아와 박혜나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일시** ~8월 9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1577-3363

공연 <2015 투첼로스 내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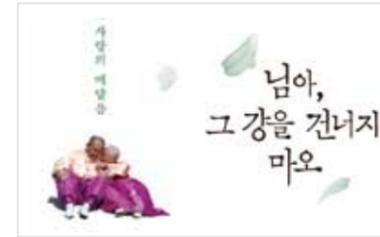
스테판 히우저와 루카 솔리코로 구성된 꽃미남 크로스 오버 듀오 첼리스트 '투첼로스'가 내한공연을 갖는다. '첼로로 해석한 팝의 향연'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유명 히트곡뿐 아니라 올해 발매한 새 앨범의 수록곡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7월 12일 **장소** 올림픽공원 옥림택 **문의** 02-568-8831

공연 <2015 박정현 콘서트-수원>



콘서트 타이틀인 '아이엠 유 아 매 AM YOU ARE ME'는 가수 박정현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며, 가장 박정현다운 콘서트를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정현의 공연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일시** 8월 1~2일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 **문의** 1544-9857

책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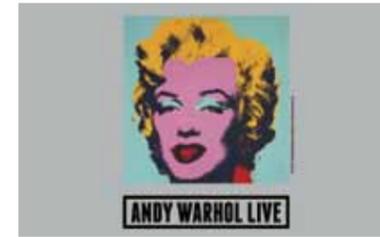
수백만의 감성을 적신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재구성해,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한 권의 책으로 찾아왔다. 책은 일생을 이어온 노부부의 사랑을 다양하고 세밀한 시선으로 포착해 숨은 과정을 이야기한다. **지은이** 진모영(이재영 편) **출판사** 북하우스

전시 <프리다 칼로-절망에서 피어난 천재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 등 멕시코 작가 10인의 작품과 사진 영상물, 장신구, 서신 등 총 100여 점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다. 디에고 리베라와의 사랑과 예술적 동맹, 멕시코의 시대상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시** ~9월 4일 **장소** 올림픽공원 소미미술관 **문의** 02-801-7955

전시 <앤디 워홀 라이브>



'세계에서 작품이 가장 잘 팔리는 작가' '20세기 팝아트 의 아이콘' 앤디 워홀 특별전 <앤디 워홀 라이브>가 찾아왔다. 뉴욕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할 때 작업한 드로잉, 1960~70년대의 실크스크린,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한 작품, 제작 영화 등 400여 점을 선보인다. **일시** ~9월 27일 **장소** DDP 디자인전시관 **문의** 02-523-3763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주어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속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문의 080-023-5454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이용권 10만원권(5명)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특급 호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용권을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객실 또는 식음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당첨자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5년 8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이용권
- 당첨자 발표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5년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김용현 경기 고양시 화정동
- 김효정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 류경희 전북 익산시 송학동
- 박지혜 서울 강북구 송중동
- 전향숙 충남 예산군 산성리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이용권 10만원권(5명)

- 강남욱 서울 강남구 청담동
- 노효현 경기 안산시 원곡동
- 장혜영 대전 중구 오류동
- 조예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추나래 경기 하남시 춘곡동

2015년 5/6월호 당첨자 선물은 7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피부 본연의 맑은 안색을 가꾸어 온종일 화사한 피부빛을 지니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피부 본연의 맑은 안색을 살릴 때 피부는 더욱 환하게 빛이 납니다
피부를 맑게 정화하고 화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목련 추출물과 진주모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완성합니다
이제,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으로 화사함의 격을 높이세요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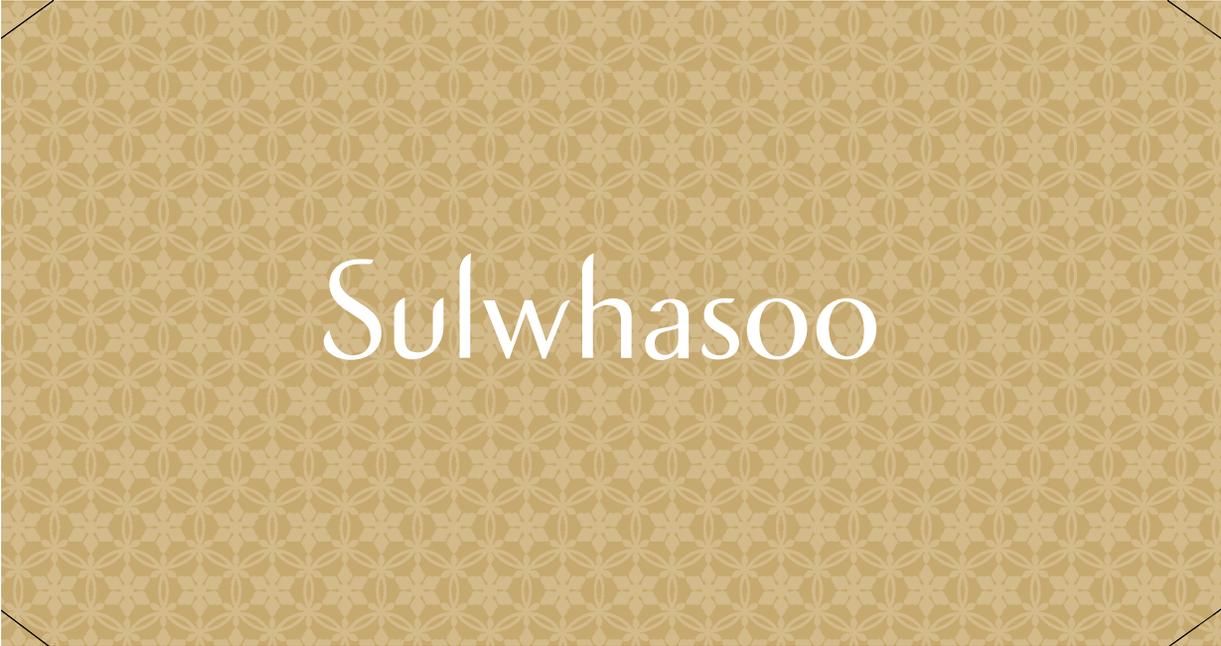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2-709-5401 팩스: 02-709-6339

1 2 1 6 0 0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폼격 있는 삶(8p)	7	6	5	4	3	2	1
피부 섬기기(12p)	7	6	5	4	3	2	1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7	6	5	4	3	2	1
新 공간을 보다(22p)	7	6	5	4	3	2	1
건너다(28p)	7	6	5	4	3	2	1

2. 누리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설화인(36p)	7	6	5	4	3	2	1
어우러지다(42p)	7	6	5	4	3	2	1
설화풍경(48p)	7	6	5	4	3	2	1
설화보감(52p)	7	6	5	4	3	2	1
설화수를 말하다(58p)	7	6	5	4	3	2	1
디자인 기행(64p)	7	6	5	4	3	2	1

3. 익히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배움의 기쁨(72p)	7	6	5	4	3	2	1
한국의 멋(78p)	7	6	5	4	3	2	1
읽다(82p)	7	6	5	4	3	2	1
설화에장(86p)	7	6	5	4	3	2	1
집 안 단장(88p)	7	6	5	4	3	2	1
몸 단장(90p)	7	6	5	4	3	2	1
마음 단장(92p)	7	6	5	4	3	2	1
설화 헤리티지(94p)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렸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전통 미용법 전통 의상 및 액세서리 등 패션 꾸밈 전통 생활문화
 한국의 미를 간직한 풍경 전통문화와 관련된 인물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 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윤조에센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이용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